

2022년도 제11기 역사문화시민대학

광주와 마한,
남도문화의
원형을 찾아서

2022년 6월 16일 - 28일

매주 화/목, 오후 3시

광주광역시(동구 미로센터)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신창동, 월계동 및

나주 일원 문화탐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2022년도 제11기 역사문화시민대학

광주와 마한,
남도문화의
원형을 찾아서

2022년 6월 16일 - 28일

매주 화/목, 오후 3시

광주광역시(동구 미로센터)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신창동, 월계동 및

나주 일원 문화탐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 프로그램

구분	일시	주제	강사진
강좌	6.16(목) 15:00	영산강유역 마한의 이해	임 영 진 (호남문화재연구원 이사장)
	6.21(화) 15:00	복암리 고분이 들려주는 마한과 고대문화	이 정 호 (동신대학교 교수)
	6.23(목) 15:00	영산강유역 전방후원형고분 출토유물 및 피장자 성격	이 범 기 (전남문화재연구소 소장)
	6.28(화) 15:00	신창동유적 -광주의 문화적 기원-	조 현 중 (前국립광주박물관 관장)
답사	6.30(목)	신창동, 월계동 및 나주 일원 문화탐방	노 성 태 (남도역사연구원장)

■ 목 차

제1강좌	영산강유역 마한의 이해 -----	05
제2강좌	복암리 고분이 들려주는 마한과 고대문화 -----	25
제3강좌	영산강유역 전방후원형고분 출토유물 및 피장자 성격 -----	43
제4강좌	신창동유적 -광주의 문화적 기원 -----	69

제1강좌 :

영산강유역 마한의 이해

임 영 진

(호남문화재연구원 이사장)

영산강유역 마한의 이해

임 영 진(호남문화재연구원 이사장)

I. 들어가며

마한은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실체이지만 기록 내용이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출범시기와 소멸시기를 비롯하여 사회성격, 공간변화 등 중요한 문제들이 밝혀지지 못한 채 다양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멸 시기는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한 마지막 마한 사회와 관련된 것으로서 논란이 계속되어 왔는데 최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한역사문화권이 포함되면서 마한역사문화권의 공간 범위가 새롭게 주목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마한 사회가 백제 건국 이후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시간별, 공간별로 정리해 봄으로써 영산강유역 마한 사회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마한의 출범 시기와 소멸 시기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므로 먼저 다루도록 하겠고,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한 마지막 마한은 마한 사회 전체의 소멸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고고 자료와 문헌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마한의 출범시기와 소멸시기

1) 마한의 출범시기

마한의 출범시기에 대한 학계의 견해는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 다양하다. 가장 이르게 보는 견해는 무문토기로 대표되는 청동기시대에 새로이 점토대토기가 나타나는 것을 마한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가장 늦게 보는 견해는 진한과 변한이 시작된 시기를 삼한의 출범으로 규정하여 마한의 출범도 같은 시기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점토대토기의 등장은 기존 무문토기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문헌기록에서 기원전 2세기초에 처음 나타나는 마한과는 시간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마한의 출범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진한과 변한이 시작된 시기는 삼한이 정립된 시기일 뿐이므로 그보다 앞선 마한의 출범을 그에 맞추어야 할 필요는 없다.

마한이 처음으로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것은 중국 진나라 진수의 '삼국지'이다. 기원전 195년에 중국 한(漢)에서 고조선으로 망명한 위만이 얼마후 준왕을 몰아내자 준왕이 바다를 통해 한(韓) 땅에 정착하여 왕을 칭하였다는 기사가 그것이다¹⁾. 이 기사는 당시 고조선 남쪽에 이미 한(韓)이라 불리는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당시에는 마한이라 불리지 않았지만 나중에 진한과 변한이 출범하자 이와 구분하기 위해 마한이라 불린 것이다. 아마도 '말한', '물한' 등으로 불린 것이 '말 馬'를 써서 마한(馬韓)으로 표기하였을 것이다. '말'은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물'은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였으므로 그렇게 불러 새로 출범한 진한, 변한과 구분하였을 것이다²⁾.

마한은 고조선 준왕이 내려오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겠지만 그에 대한 문헌기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준왕이 남하하였다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한 다음 그 문화의 내용과 기원을 파악하는 순서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준왕이 남하하였던 마한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 유물들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익산을 비롯한 전북 서부지역을 지목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와 상통하는 유적, 유물은 충남과 전남지역에서도 확인되는데 세형동검문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마한의 출범 시기는 기존 비파형동검문화가 세형동검문화로 바뀌는 기원전 3세기 전반경이라고 할 수 있다.

1)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한조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위략(魏略)'에 나오는 기사를 소개한 것이다.

2) 조선 고종 때 새로운 국명이 되었던 '대한제국'의 '대한' 역시 '큰 한'이라는 뜻이다.

2) 마한의 소멸시기

마한은 3세기 중엽경까지 경기, 충청, 전라지역에 걸쳐 있다가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고대국가 백제가 성립함에 따라 경기지역부터 백제에 병합되어 나갔다. '삼국사기'에는 온조왕 때 소멸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중국 '후한서'와 '삼국지'를 보면 마한이 3세기 중엽경에 54개국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진서'에는 마한이 3세기말까지 서진(西晉)에 사신을 파견하였던 기록이 있다. '일본서기'에는 신공기 49년조에 관련 기사가 보이는데 1959년 이병도 박사는 이 기사를 4세기 중엽 백제 근초고왕이 전남지역의 마지막 마한을 병합한 것으로 보았고, 그 이후 통설이 되어 현재까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진서'는 3세기말 이후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서기'의 관련 기사는 내용의 사실성 자체에 의구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공의 기사라고 보는 연구자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한 4세기병합설은 수용하기 어렵다.

고고학계에서는 20여년 전까지 문헌사학계의 4세기 중엽설을 바탕으로 영산강유역에서 대형 옹관묘가 사용되는 시기까지는 백제에 의해 간접지배되다가 5세기 중엽경에 시작되는 석실묘를 기점으로 직접지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1996년 나주 복암리 3호분의 한 석실에서 4기의 옹관이 출토되고, 석실의 구조가 백제 석실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기존 견해가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북 서남부 고창지역을 포함한 전남지역의 마지막 마한 소국들이 백제에 병합된 시기를 530년경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한역사문화권'이 설정되는 학술적 근거가 되었다.

Ⅲ. 마한의 시기별, 지역별 특징

마한은 기원전 3세기 전반에 성립되어 경기·충청·전라지역을 무대로 발전하다가 530년경 소멸하였지만 모든 지역이 동일한 발전을 거친 것이 아닙니다. 중국 '진서'를 보면 마한은 10여 차례 사신단을 파견하였는데 사신단을 구성한 소국의 수는 작게는 3개국, 많게는 20여국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고자료를 보면 마한 소국과 관련된 고분, 주거지, 토기류, 금속기류 등이 공간적으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한강유역권, 아산만권, 금강유역권, 영산강유역권, 남해안권, 시간적으로는 초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분 기	권 역	주요 유적	주요 토기	
초기 (3~1c BC)	아산만권 금강유역권 영산강유역권	아산 남성리 부여 합송리 완주 갈동·신평 광주 신창동 화순 대곡리	점토대토기 흑도창경호	
전기 (1~3c전반)	한강유역권 아산만권 금강유역권 영산강유역권 남해안권	김포 운양동 천안 청당동 익산 영등동 해남 군곡리 보성 조성리	경질무문토기 이중구연호 양이부호 조형토기	
중기 (3c후반~4c중엽)	금강유역권 영산강유역권 남해안권	아산 밖지미래 익산 간촌리 영암 시중 함평 만가촌 담양 태목리	이중구연호 양이부호 조형토기 분주토기 거치문토기 조족문토기	
후기 (4c후엽~5c후엽)	영산강유역권 남해안권	고창 봉덕리 나주 반남 광주 동림동 순천 덕암동 고흥 길두리 안동	조형토기 분주토기 거치문토기 조족문토기 유공광구호	
말기 (5c말~6c초)	영산강유역권 남해안권	나주 복암리 해남 월송리 조산	분주토기 거치문토기 조족문토기 유공광구호	

<표 1> 마한 사회의 시간적, 공간적 주요 특징

1) 초기의 마한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

아산만권을 중심으로 기원전 3세기초부터 기존 청동기시대의 비파형동검

을 대신하여 새로운 세형동검이 유행하기 시작하고 의례용 청동기와 동경이 제작되며, 동모·동과·동사 등 다양한 청동기들이 나타난다. 이와같은 새로운 청동기는 깊은 토광에 통나무관을 안치한 다음 흙과 할석을 섞어 토광을 채운 새로운 묘제의 등장과 관련되어 있으며 점차 전북 익산지역, 전남 영산강유역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기원전 3세기초에 시작되었던 이와같은 변화는 기존의 비파형동검문화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매우 갑작스러운 것이다. 그와같은 변화는 현지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의 파급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여러 가지 청동 방울들과 거기에 새겨진 일광문은 북방문화 요소이다. 이후 주조철부와 납-바리움 계통의 유리 관옥 등 전국시대 철기문화도 파급되었는데 성행하지는 못하였다.

마한 성립기에 해당하는 청동 유물들은 종교적인 성격이 대단히 강한 편이며 사슴, 손, 십자일광문, 수렵문 등의 문양 내용을 보면 그 주인공은 사마니즘과 관련된 종교주재자인 동시에 농경과 수렵을 관장하는 인물로서 제정일치 사회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전기의 마한 (기원전 1세기 - 3세기 전반)

기원전 1세기가 되면 동경, 철경동축, 철검, 철모, 철과, 화폐 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묘제에 있어서는 토광목관묘와 소형 옹관묘가 사용되기 시작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분구묘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한강유역권에서는 동예(東濊) 문화가 파급되었고, 임진강유역에는 2세기 말경에 고구려 계통의 적석총이 등장한다. 이 지역의 적석총은 3세기중엽 이후 현지에서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서울 강남지역에 등장하는데 이는 고구려계 이주민들이 남하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아산만을 낀 충청 내륙지역에서는 2세기대부터 천안 청당동 유적에서 마한권의 중심지였음을 말해주는 고고학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는 마한 맹주국인 목지국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금강유역권에서는 분구묘가 성행하

었는데 이 분구묘는 북으로는 한강유역, 남으로는 영산강유역에 이르는 마한 서부지역에서 큰 시차 없이 시작되었다.

영산강유역권에서는 광주 신창동 유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벼농사가 발달하였다. 남해안지역에서는 패총이 성행하였는데 출토되는 복골들은 당시 사회가 기존의 제정일치사회 단계에서 벗어나서 신권정치사회 단계에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화천·왕망전·오수전 등의 중국 동전들은 해로를 통해 낙랑이나 중국과 교류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3) 중기의 마한 (3세기 후반 - 4세기 중엽)

한강유역을 중심으로한 경기지역에서는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지만 발전의 주체는 기존의 마한 사회가 아니라 적석총을 쓰는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에 의해 건국된 백제이다. 아산만권에서는 3세기말부터 기존 마한 토광묘에 부장되었던 토기 조합이 깨어지고 난형토기와 같은 백제토기가 부장되는데 이는 이 지역 마한 중심세력이 해체되고 백제에 편입되었음을 말해준다. 청주를 중심으로한 금강 상류지역 역시 3세기말-4세기초 사이에 백제에 편입되었는데 청주 신봉동 유적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성백제의 중심지 외곽지역에서는 목관(곽)묘에 이어 4세기초부터 석곽묘가 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4세기 중후엽경부터는 석실묘가 축조되기 시작하였다. 백제의 석실묘는 낙랑·대방지역 중국식 전축분이 모델이 되어 시작된 것으로서 초기 석실묘의 주인공은 지역 세력자로서 고구려의 낙랑 축출에 따라 남쪽으로 내려온 이주민도 섞여 있을 것이다.

금강유역권과 영산강유역권에서는 분구묘가 발전하였다. 특히 영산강유역권에서는 매장주체부가 대규모 옹관으로 바뀌어 나갔다. 그러나 전북지역 옹관묘는 4세기 중엽경부터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데 이는 4세기 중엽경에 전북지역이 백제에 통합되었음을 말해 준다. 영산강유역권에서는 기존의 분구묘가 수평적인 추가장에 따라 길다랗게 축조되었는데 지역에 따라 위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영암 시종지역과 함평 월야지역에 거대한 고분들이

집중되는데 이는 이 지역이 영산강유역권의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남해안권에서도 분구묘가 확산되었는데 평면 형태는 방형이 우세하며 고대한 분구를 가진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서쪽으로는 영산강유역권, 동쪽으로는 가야 세력 사이에서 발전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4) 후기의 마한 (4세기 후엽 - 5세기 후엽)

경기·충청·전라지역 마한 세력 가운데 나주 반남을 중심으로한 영산강유역권의 마한 세력이 본격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시기이다. 분구묘는 수평적인 확장에서 더욱 발전하여 수직적인 확장을 통해 고대화된다.

나주 반남지역이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되는데 고분들은 당시 고대국가의 도읍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30-50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발전하면서 다른 지역과 구분된다. 이는 영산강유역권 마한세력의 위계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한편 보다 긴밀한 연계 속에서 반남 세력을 중심으로 결집되어 나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백제의 압박에 따라 영산강유역권의 통합이 요구되면서 영산강 중상류지역 마한 세력과의 연대 강화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할 것이다.

남해안권에서는 고흥반도를 중심으로 대규모 분구를 가진 고분들이 축조되어 나갔다. 안동고분과 야막고분 출토 자료로 보아 이 지역에는 남해안 연안항로의 길목에 해당하는 지리적인 이점을 바탕으로 상당한 규모의 해상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수, 순천 등의 섬진강 서부지역은 5세기후반부터 대가야의 영향권에 들어가며 6세기초에는 백제에 복속되었다.

5) 말기의 마한 (5세기 말 - 6세기 초)

영산강유역권의 마한 사회가 최성기를 맞았다가 급격히 해체되는 시기이다. 중심지인 나주 반남지역에서는 신촌리 9호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금동관, 금동상투관, 금동신발, 환두대도 등 최고 수준의 위세품을 내는 한편 새로이 나주 다시지역에 신흥 세력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구 분	기원전후-2c말	2c말 - 4c중엽	4c중엽 - 5c말	5c말 - 6c초
방형목관분구묘	=====			
제형목곽분구묘	--=====			
(장)방대형옹관분구묘	--=====			
원형, 장고형석실분구묘	--=====			
분 구 규 모	저분구	중분구	고분구	고분구
분 구 형 태	방형	제형	(장)방대형	원(대)형
중심매장주체	목관	목곽	전용옹관	석실
매 장 방 식	단장-다장	다장(수평적)	다장(수직적)	합장
제사(주구내)	미상	소규모	성행	약화
분포 특징	다지역 산재	다핵 중심권	다핵 계층화	다핵 계층화 이완
사회 통합도	(소국)분립	권역별 통합 (권역별 중심지)	유역권 통합 (대중심지 등장)	통합 이완 (권역별 부중심)
변 천 배 경	분구묘 파급	백제건국과 아산 만권 병합에 따 른 권역별 결집	백제의 금강하류 권 병합에 따른 통합 대응	백제의 공주 천도 에 대응한 일본 규슈와의 연계

<표 2> 영산강유역권 분구묘의 변천과 그 배경

다른 한편으로는 5세기말에서 6세기초에 걸쳐 일본식 장고분이 축조되었다. 그동안 그 피장자와 축조배경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장고분들이 당시 이 지역의 중심지였던 반남지역을 제외하고 그 외곽지대에만 산재되어 있다는 점과 매장주체시설이 기타규슈형(北九州型)과 히고형(肥後型)으로 세분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기타규슈형 석실 장고분의 주인공들은 5세기 4/4분기에 이와이(盤井) 세력의 규슈 북부 진출로 인해 망명한 규슈 북부지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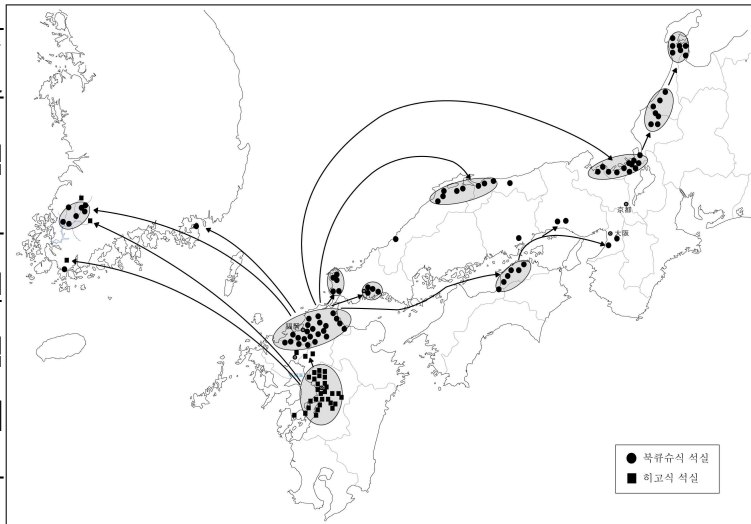


<그림 1> 장고분 분포도

세력자로 추정되고, 히고형 석실

장고분의 주인공들은 6세기 2/4분기에 야마토(大和) 정권의 규슈 지역 지배를 피해 망명한 아리아케카이(有明海) 지역의 세력자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백제가 기나이(畿内) 지역의 야마토 세력과 연계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야마토 세력에 완전히 복속되지 않았던 규슈 세력과 백제에 완전히 복속되지 않았던 영산강유역 세력과의 연계는 당연한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전북 서남부지역을 포함한 영산강유역권의 마지막 마한 사회는 6세기초까지 규슈 지역과 교류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발전하였으며, 일본의 정세변화로 인해 규슈 지역의 연대세력을 잃음과 동시에 백제의 사비 천도와 연계된 적극적인 남진 정책으로 인해



<그림 2> 북규슈식 석실과 히고식 석실의 파급범위
급속히 해체되어 백제의 편제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IV. 영산강유역 마한과 백제의 관계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한 마지막 마한 지역과 백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지배 · 간접지배 · 공납지배 · 거점지배 · 영향권 · 세력권 · 지배적동맹관계 등 다양하게 표현

되어 왔다. 게다가 연구자에 따라 동일한 용어에 대해 그 내용을 다르게

	구분	특징
영역 내	직접지배	파견관리 지배 / 조세
	간접지배	지방유력자 지배 / 조세
영역 외	세력권	군사, 정치적 관리 / 공납
	영향권	경제, 문화적 관계 / 조공

쓰거나, 비슷한 내용에 대해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계를

<표 3> 지배방식의 구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직접지배, 간접지배, 세력권, 영향권 등 크게 4가지 가능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직접지배 검토

직접지배는 왕이 파견한 지방관에 의해 지방 행정이 직접 집행되는 것인데 관등제로 대표되며, 고분과 출토유물에는 엄격한 위계와 계통이 잘 반영된다. 문헌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6세기 중엽 이전 백제의 직접지배로는 담로제와 왕·후호제라고 할 수 있다. 담로제는 왕의 자제·종족이 22개 담로 지역을 나누어 다스렸던 제도이다. 당시 담로에 파견된 왕의 자제·종족들이 중앙에 거주하였는지 해당 담로에 거주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경우라도 하더라도 사망 후에는 지방의 담로에 무덤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금동관·금동상투관·금동신발 등의 최고급 위세품들이 왕의 자제·종족이나 왕·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것이다.

5세기 이후 영산강유역권에서 출토된 금동관·금동상투관·금동신발과 같은 위세품들은 백제와 관련된 것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입수 배경에 대해 금동상투관·금동신발은 백제 왕실에서 사여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 신촌리 9호분의 금동관은 백제계 초화입식과 계통이 다른 복합나선문을 가졌으므로 자체 제작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담로나 왕·후와 관련될 가능성 보다는 독자 세력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6세기초까지 이 지역이 백제의 직접지배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간접지배 검토

간접지배는 지배영역에 해당하지만 중앙의 행정력이 직접 미치지 않고 해당지역 유력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방 유력자가 중앙에 거주하면서 해당지역을 관할하지만 대외교섭권과 군사

권은 갖지 못한다. 간접지배 담당자가 중앙에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인질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백제에서는 문헌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시간적·공간적·내용적으로 적지 않은 견해 차이를 보여준다.

간접지배를 고고학적으로 확인하는 데에는 위세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접지배를 받는 지역에서는 왕을 비롯한 최고지배세력을 능가하는 위세품을 소유하기 어려우므로 금관이나 금동관과 같이 독립된 세력을 상징하는 위세품을 소유하기 어렵다. 금동상투관은 독립된 세력자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전에 중앙에서 사여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금동신발은 사후에 중앙에서 사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간접지배 책임자는 사망 후 활동지인 중앙에 무덤을 둘 수도 있겠지만 혈연이 중요했던 고대사회에서는 귀장을 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생전에 사용하였던 금동상투관은 그대로 착장되었을 것이고 금동신발은 사망후 사여 받아 착장되었을 것이다.

무덤의 규모를 비롯한 여러 자료들도 중앙의 최고 수준에 미치지 못함은 당연한 일이다.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금동상투관은 출토된 고분의 구조·규모, 공반된 금동



<그림 3> 나주 신촌리 출토 금동관과 금동상투관

관으로 보아 백제의 간접지배 상황에서 사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백제 왕실에서 호혜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그 주인공의 생전에 제공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금동신발은 사망 후 장송예품으로 제공된 것일 것이다.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석곽에서 출토된 금동상투관과 금동신발 역시 이 고분의 구조·규모·공반유물, 특히 금동상투관의 위치가 목관 외부의 발쪽이었다는 점에서 백제의 간접지배와 관련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주 정촌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은 그 주인공은 여성으로서 현지 세력자와 혼

인한 백제 여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백제의 간접지배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3) 세력권 검토

세력권은 정치적·군사적으로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공납을 통해 신속을 표현하는 관계에 해당하며 공납적 관계 혹은 공납지배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지배영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역이 서로 인접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권역에 해당한다. 공간적으로나 정치적·군사적으로 독립된 것은 분명하지만 인접하였다면 자율성을 제약 받기 쉬웠을 것이다.

세력권은 백제에서 문헌을 통해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견해 차이를 보여주며 간접지배나 공납지배로 표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백제 영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간접지배와 명확하게 구분되고, 공납은 하지만 지배를 받는다고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납지배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세력권을 고고학적으로 확인하는 데에는 금관이나 금동관과 같이 독립된 세력의 지배자를 상징하는 독자적인 위세품이 중요하다. 금동상투관이나 금동신발은 독립된 세력의 지배자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력권을 파악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 세력권에서도 무덤의 규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적·유물들에서 백제 중앙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지만 무기류에 있어서는 종류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백제 중앙에서 제작되었다고 판단되는 금동상투관·금동신발이 출토된 무덤 가운데 규모가 백제 중앙에 미치지 못하면서 공반 유물에 있어서도 백제 중앙의 최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덤은 그 주인공이 백제 세력권에 포함되었던 지역의 최고지배자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주 신촌리 9호분은 금동상투관·금동신발 등 백제의 위세품들이 출토되었지만 최고급 위세품인 금동관이 독자적인 것이면서 무덤의 규모가 당

시 백제 왕실 무덤보다 크고 백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분주토기가 배열되어 위용을 과시하는 등 당시 백제의 직, 간접적인 지배는 차치하고 세력권에 속하였다고 하더라도 나타나기 어려운 특징들을 보여준다.

4) 영향권 검토

영향권은 경제적·문화적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조공을 통해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간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유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육로 혹은 해로를 통해 조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력권과 다른 점은 신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인 공납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공 역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진 문물을 도입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백제의 영향권 역시 문헌기록을 통해서는 <그림 4> 중국 양직공도 백제사신 확인하기 어렵지만 백제의 영역과 무관한 지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세력권과의 구분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겠는데 이는 중국 '양직공도(梁職貢圖)'에 기재된 백제 방소국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521년 백제 무령왕이 중국 양(梁)에 파견한 사신은 백제 주변에 반파, 탁, 다라, 전라, 사라, 지미, 마련, 상사문, 하침라(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巳文·下枕羅) 등 부용국이 있다고 하였다.

'양직공도'의 이 기사는 일부 과장이 섞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521년 백제에서 양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사라로 기재된 신라 사신을 대동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그 시점에서 크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다만 부용의 정도가 세력권에 해당하는지 영향권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이를 구분하는 1차 기준은 문헌기록에 반

영된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2차 기준으로 공간적 접근성을 감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백제와 공간적으로 접하는 곳은 백제가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쉬우므로 세력권으로, 이격된 곳은 백제의 군사적 압박은 어렵겠지만 경제적·문화적으로 관련될 수 있으므로 영향권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향권에 대한 고고학적 확인은 위세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금동상투관·금동신발은 생전이나 사후에 백제 중앙에서 제공되었을 것으로 간접지배나 세력권과 다를 바 없겠지만 출토된 무덤의 구조·규모·공반유물 등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나주 신촌리 9호분의 경우와 같이 독자적인 금동관이 출토되었다면 독립된 세력의 최고지배자임이 분명한 것이므로 백제와는 지배-피지배의 관계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³⁾.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산강유역권의 마지막 마한 사회가 백제와 전혀 무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영산강유역권의 마지막 마한 사회는 일본 규슈지역을 비롯하여 백제, 가야와도 교류하고 있었다. 서울 풍납토성 우물에서 소가야 토기와 함께 출토된 영산강유역 토기나 공주 정지산유적에서 소가야 토기와 함께 출토된 영산강유역 토기는 당시 백제와 주변 세력과의 관계를 보여주지만 소가야와 함께 백제와 지배-피지배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공주 무령왕릉이 중국식 전실분이라고 해서 당시 백제가 양나라에 복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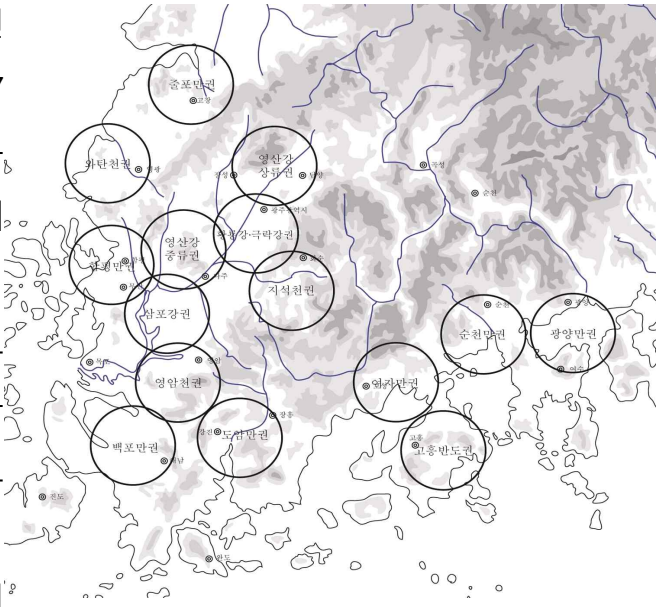
3) 일본 규슈 에다후다야마(江田船山古墳) 출토 백제 금동상투관·금동신발 역시 이 지역이 백제의 영향권이었거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백제의 희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나오며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한 마지막 마한 세력은 '일본서기'의 불확실한 기사를 바탕으로 4세기 중엽 근초고왕때 백제에 병합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지만 나주 북암리 3호분을 비롯한 다양한 고고학 자료와 중국 '양직공도' 기사를 통해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양직공도'에 기재된 백제 방소국 기사는 521년에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백제에 병합되지 않은 마한 소국들이 존재하였음을 말해준다. 이 마지막 소국들은 15개 정도였는데 530년경에 이르러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평화적인 방법을 택하여 백제에 속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석실분이나 다시면 북암리 3호분의 5호·16호 석실에서 출토된 백제 은화관식은 이들이 백제에 편입된 이후에도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말해준다.

530년경 마지막 마한 소국들을 병합하였던 백제는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한 다음 기존 22담로에 새로 편입된 15개 소국들을 합하여 37군으로 편제하였다. 다만 백제는 기존 중심지였던 반남 세력을 대신하여 다시 세력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관리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최고 지배세력을 상징하는 석실묘와 위세품을 보면 6세기 중엽 이후부터 반남 지역보다 다시 지역이 더 높은 위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기



<그림 5> 마지막 15개 마한 제국의 위치 추정도

때문이다. 이는 고대 국가에서 새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 적용하였던 가장 일반적인 관리 방식이었다.

이상으로 백제 건국 이전부터 경기, 충청, 전라지역에 걸쳐 있었던 마한에 대해 시간적, 공간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마지막 마한이 백제에 병합된 시기에 대한

		(250)		(300)		(370)		(475)		(530)	
경기	(백제국)	경기	백제	경기	백제	경기	백제	경기	고구려	경기	고구려
충청	마한 (54국)	충청	마한 (37국)	충청	마한 (25국)	충청	백제	충청	백제 (22 담로)	충청	백제 (37군)
전북		전북		전북		전북		전북		전북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표 4> 마한 54국, 백제 22담로, 백제 37군 관계

문제인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한역사문화권'이 설정된 것은 최근의 새로운 조사, 연구 성과가 반영된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를 비롯하여 마지막 마한 중심 세력이었던 '신미국(新彌國)' 위치 등 논란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계속되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연구 성과를 교과서에 반영하고, 중요한 유적들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함으로써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저서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백제』, 2006.
- 임영진, 『백제의 영역변천』, 주류성, 2006.
- 서현주, 『영산강유역 고분 토기 연구』, 학연문화사, 2006.
- 김낙중, 『영산강유역 고분 연구』, 학연문화사, 2009.
- 임영진 외, 『중국 양직공도 마한제국』, 학연문화사, 2019.
- 임영진, 『우리가 몰랐던 마한』, হল리데이복스, 2021.

2. 논문

- 노중국, 「문헌기록 속의 영산강유역」, 『백제학보』 6, 백제학회, 2011.
- 임영진, 「전남지역 석실봉토분의 백제 계통론 재고」, 『호남고고학보』 6, 호남고고학회, 1997.
- 임영진, 「영산강유역의 분구묘와 그 전개」, 『호남고고학보』 16, 호남고고학회, 2002.
- 임영진, 「중국 육조자기의 백제 도입 배경」, 『한국고고학보』 83, 한국고고학회, 2012.
- 임영진, 「영산강유역권 왜계고분의 피장자와 ‘임나일본부」, 『지역과 역사』 35, 부경역사연구소, 2014.
- 정동준, 「문헌사료로 본 백제의 마한 통합과정」, 『백제학보』 29, 백제학회, 2019.
- 임영진, 「삼국시대 영산강유역권 금동 위세품의 역사적 성격」, 『백제학보』 31, 백제학회, 2020.
- 임영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한문화권’이 포함되어야 할 당위성」, 『호남고고학보』 64, 호남고고학회, 2020.

제2강좌 :

**복암리 고분이 들려주는
마한과 고대문화**

이 정 호

(동신대학교 교수)

복암리 고분이 들려주는 고대문화

- 고대의 신화세계 -

이정호(동신대학교 교수)

1. 머리말

동서양의 신화에서 상상의 동물은 보편적인 문화 현상이다. 상상의 동물은 현세 삶에 대한 갈망이 자연계 동물에 이입되고,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상서로운 서수(瑞獸)로 나타난다.

상상 동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실재하는 동물에 상상적 요소가 첨부되기도 하고, 여러 동물이 조합되어 만들어지거나 혹은 온전히 상상만으로 새로운 동물이 탄생하기도 한다.

또한 같은 상상 동물이라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상징성이 달라지고 표현도 달라진다. 문화권에 따라 상상 동물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동양의 용은 권력을 상징하는 상서로운 존재이지만, 서양에서는 악의 존재이자 암흑세계의 동물로 그려진다.

우리나라 전통의 상상 동물은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다. 상상 동물을 집대성한 중국의 문헌으로는 《산해경(山海經)》과 《삼재도회(三才圖會)》 등이 있다. 이러한 문헌에 나타나는 상상 동물은 고대 인간이 가진 인식, 그리고 당시 기술발전 정도에 따른 인지력으로 말미암아 인접 사회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었다. 비록 중국의 문헌에 등장하는 요소들이지만, 우리 문화 속에 녹아 있는 것이 결코 이질적일 수 없는 이유다.

이 글에서는 나주 복암리고분 금동신발을 장식하였던 물고기와 정촌고분 금동신발에 새겨진 다양한 상상 동물을 이야기한다. 이 글의 상상 동물과 그 골자는 위의 유적을 발굴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성윤길 선생의 금동신발 문양 분석을 바탕으로 침삭과 보완한 내용이다.

2. 북암리고분 금동신발과 상상동물

1) 북암리고분의 금동신발

북암리고분군 제3호분 96석실에 부장된 금동신발에는 물고기를 장식하고 있다. 부식이 심해서 형태가 완전하지 않지만, 복원 결과 신발 두 켤레에 각각 9수의 물고기가 장식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옹관(4호옹관)의 바깥쪽 바닥 아래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 옹관을 안치하기 이전에 있던 목관의 부장품으로 추정된다.

금동신발 표면에는 육각형의 귀갑문(龜甲文)과 귀갑문 안에 꽃무늬(花形文)를 배치하고 귀갑문 테두리를 따라 영락(瓔珞)으로 부르는 둥근 금동판을 구슬장식처럼 달았고, 그 사이 사이에 물고기장식을 매달았다. 신발 바닥에는 못을 돌출시켰다.

육각형 귀갑문 안에 꽃잎이 4개 또는 5개인 꽃무늬를 배치하였고 꽃잎 중앙에는 꽃씨방을 표현하였다. 귀갑문은 점열문으로 육각형을 만들고, 육각형의 점열을 따라 안팎으로 얇은 점열을 추가로 배열하였다. 영락은 귀갑문의 육각형 꼭지점마다 달았는데, 영락을 매단 고리는 금실을 꼬은 것이다. 바닥에는 날카로운 사각뿔모양의 못 9개를 배치하였다.

신발 바닥에 물고기장식(魚形裝飾) 9개가 달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발이 부식되면서 일부는 없어졌다. 이러한 물고기 장식 금동신발은 일본 후지노키고분(藤ノ木古墳)에서도 출토되었다.



<그림 12> 나주 복암리 3호분 96석실 출토 금동신발

2) 아홉수의 '어룡'

복암리 96석실의 금동신발 바닥에는 부식되어 없어진 부분이 있지만, 당초에는 물고기장식(魚形裝飾) 9개가 달려 있었다. 물고기 길이는 3.2cm 내외이다. 물고기는 눈과 비늘이 모두 점문으로 표현되었다. 전체적인 형태가 부드럽고 양 지느러미와 꼬리도 잘 표현되어 있다.

《장자》의 첫 구절에는 '북쪽 바다에는 크기가 몇천리에 이르는 '곤(鯨)'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곤'은 새로 변하여 '봉(鵬)'이 된다. 천지가 뒤바뀔 적에 남쪽 바다로 옮겨 가는데, 그 남쪽 바다란 곧 하늘의 연못이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설문(說文)》에서는 '곤'이 물고기로 나오지만, 《서경(書經)》과 《사기(史記)》에는 홍수를 다스리다 실패한 자이며, 하(夏)나라 우왕(禹王)의 아버지 이름으로 등장한다. 《좌씨전(左氏傳)》에 의하면 '곤'은 죽어서 그 혼(魂)이 황웅(黃熊)이 되어 우연(羽淵)에 가라앉았다고 한다.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에 이 신(神)에게 제사를 지낸 흔적이 있고, 진(晉)나라때 씌어진 《습유기(拾遺記)》에도 산둥[山東]지역 해안 촌민들이 그 묘(廟)에 제사지냈다고 전한다.

고구려 덕흥리벽화고분의 앞 칸 동벽 천정에 그려진 서수(瑞獸:상서로운 동물) 중에는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나는 '비어(飛魚)', 백제 무령왕릉의 목침에



<그림 13> 금동신발의 물고기 장식

는 인동초를 입에 물고 뛰어오르는 어룡문이 그려져 있다.

《산해경》에는 '유사(流沙)라는 물 속에는 문요어(文鯨魚)가 많다. 잉어의 몸에 새 날개가 달려 있고, 몸에는 푸른 무늬가 있으며, 머리는 하얗지만 부리는 붉다. 이 물고기는 서해에서 돌아다니지만 문득 동해로 날아가서 노닐기도 하며, 밤이면 무리를 지어 날아오른다. 우는 소리는 난새의 울음소리와 비슷하다. 문요어의 고기는 신맛에 단맛이 섞여 있는데, 사람이 먹으면 미친병이 치유된다. 이 물고기가 사람 사는 곳에 나타나면 천하에 오곡이 풍성해진다'라고 하였다.

물고기 외모에 날개가 달려있어, 신선세계에 살고 있는 서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물고기 문양은 《후한서》에는 '등용문'이라는 이야기와 닿는다. '황하 상류에 용문이라는 거센 폭포 계곡이 있는데, 폭포를 거슬러 올라간 물고기는 용이 된다'는 이야기에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입신출세하는 것을 말한다.

복암리3호분 96석실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은 한 켤레에 9수의 물고기를 장식하였다. 두 켤레 모두 곱하면 81수가 된다. 무속의 성격이 강한 도교 경전 『옥주보경(玉樞寶經)』에는 '9가 양수(陽數)이며 하늘의 도(道)를 나타낸다'라고 하였다. 또한 무가(巫歌)에서는 만물을 낚는 3이 곱해져(3×3) 이루어진 9수를 양(陽)의 극치로 보고 모든 우환의 때를 이겨내는 길조의 상징으로 여겼다. 절일(節日) 중에서 양수가 겹치는 음력 9월 9일을 양기가 총만하다 하여 가장 좋은 길일(吉日)로 삼은 것도 그 때문이다.

불교에서도 9는 부처의 삼보(三寶)중 법(法)을 의미하는 숫자로 상징된다. 진표율사(眞表律師)는 미륵보살에게서 2개의 간자(簡子: 점을 치는 대쪽)를 받았는데, 9간자와 8간자였다. 여기서 '9'는 법, 즉 진리 그 자체를 뜻한다.

세상의 이치를 음양오행으로 풀었던 동양에서 숫자 9는 양의 기운이 총만한 완전한 수라 여겨졌다. 이보다 더 큰 수가 없는 불후의 숫자였던 셈이다. 불교에서 9는 지고의 영적인 힘을 상징하면서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믿었던 아홉 개의 천체, 즉 '구천(九天)'을 의미했다.

복암리고분 금동신발은 형상은 물고기이지만 용으로 변신되는 어룡이며,

사자(死者)를 천계로 인도하는 인도자였다. 그 신성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기운이 충만한 수인 9수의 물고기가 등장하며, 신발 두 켤레가 조합할 때, 무한의 경지인 81수가 되어 사자(死者)의 완전무결한 저승길 또는 사자(死者)의 신성성을 보여주고 있다.

3. 정촌고분의 금동신발과 상상 동물

(1) 정촌고분의 금동신발

정촌고분 1호석실에서 출토되었다. 모두 3기의 목관이 안치되었는데, 금동신발은 가장 마지막에 추가장으로 안치한 목관(목관3)의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금동신발 내부 흙에서 다량의 파리 번데기 껍질이 확인되었는데, 종류는 '검정파리'였으며, 9~10월 경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금동신발 주인공의 사망시점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파리는 알에서 번데기까지 평균 6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금동신발의 주인공은 사후 최소 6일간 빈(殯)과 같은 장례절차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금동신발은 몸체, 발목 덮개, 발등 장식의 3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몸체는 다시 좌·우 측판과 바닥판의 3개 판이 결합된다. 판이 겹쳐지는 부분은 리벳으로 고정되며 뒤꿈치와 발등 모두 3개의 못을 사용한다.

바닥판에는 별도의 고정 장치가 없고, 좌·우 측판의 끝단을 구부려 바닥판의 가장자리가 걸릴 수 있도록 했다. 금동신발 발등에는 좌·우 측판이 겹치는 부분을 따라 젓가락 모양의 청동 막대를 납작하게 펴서 붙였고 그 끝에 용머리 장식을 리벳으로 고정하였다.



<그림 14>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2) 사자(死者)를 인도하는 '용(龍)'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머리에 표현된 용머리 장식은 도상이 단순화되었으면서도 뚜렷한 삼각형의 눈, 머리에서 연결된 세 개의 돌기가 달린 뿔, 돌출된 코와 포효하는 입술, 입안을 가르며 튀어 나오는 혀, 머리 뒤에 돋은 커다란 귀 등 용의 특성을 강조하여 표현한 뛰어난 조각품이다. 이러한 용의 도상은 고구려 고분인 무용총 벽화의 청룡과 흡사하며, 무령왕릉의 용봉문환두대도, 공주 수촌리 1호분 출토 관모의 용과도 유사한 모티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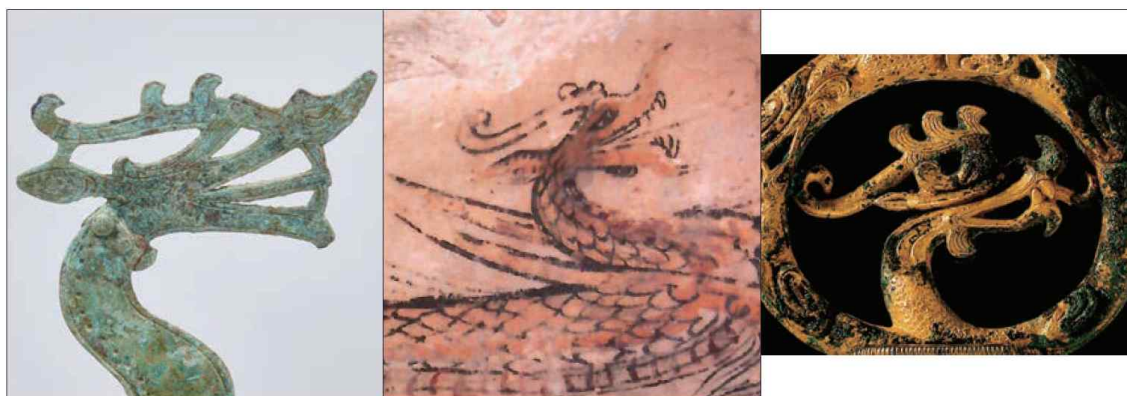
<그림 15> 금동신발 용머리 장식

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감이 남다른 상상의 동물이다. 예로부터 상서(祥瑞)로운 영물(靈物)로 알려져 왔다. 기린, 봉황, 거북과 더불어 사령(四靈)이라 여겼고, 왕들의 '용포(龍袍)'에 그려진 용무늬에서 느낄 수 있듯이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였다.

《광아(廣雅)》〈익조(翼條)〉에는 용의 모습을 '인충(鱗蟲) 중의 우두머리로서 그 모양은 다른 짐승들과 아홉 가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머리는 낙타와 비슷하고, 뿔은 사슴, 눈은 토끼, 귀는 소, 목덜미는 뱀, 배는 큰 조개, 비늘은 잉어, 발톱은 매, 주먹은 호랑이와 비슷하다. 아홉 가지 모습 중에는 9·9 양수(陽數)인 81개의 비늘이 있고, 그 소리는 구리로 만든 쟁반을 울리는 소리와 같고, 입 주위에는 긴 수염이 있고, 턱 밑에는 명주(明珠)가 있고, 목 아래에는 거꾸로 박힌 비늘(逆鱗)이 있으며, 머리 위에는 박산(博山)이 있다.'

고 하였다.

용은 조화능력이 무궁무진하며 특히 물과 깊은 관계를 지닌 수신(水神)으로 믿어져 왔다. 물을 관장하는 용이 사는 이른바 '용궁'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유래한다. 《관자(管子)》〈수지(水地)〉에는 '용은 물에서 낳으며, 그 색깔은 오색(五色)을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조화능력이 있는 신이다. 작아지고자 하면 번데기처럼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지고자 하면 천하를 덮을 만큼 커질 수도 있다. 용은 높이 오르하고자 하면 구름 위로 치솟을 수 있고, 아래로 들어가자 하면 깊은 샘 속으로 잠길 수도 있는 변화무일(變化無日)하고 상하무시(上下無時)한 신이다' 라고 하였다. 용은 천계를 통치하는 옥황상제의 사자로 받아들여졌으며, 불교에서는 불법을 수호하는 팔부신(八部神) 중의 하나로 불법을 수호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림 16> 용 장식 (정촌고분, 모용총, 무령왕릉)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용은 좌우 측면에 7~10마리의 용이 장식되어 있다.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과 가장 유사한 고창 봉덕리 출토품에도 용이 장식되어 있지만 소수이다. 도교의 신선에 관한 이론을 집대성한 《抱朴子》에는 '...구름을 타고 용을 몰아 하늘을 오르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莊子》〈內篇〉에는 '신인(神人)이 구름을 타고 나는 용을 부려 사해 밖을 노닌다' 하였다. 두 기록에서 용을 부려 하늘을 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동명왕편〉에는 천제의 아들 해모수가 '오룡거(五龍車)를 타고 채색구름 속에 떠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莊子》〈內篇〉의 '구름을 타고 용을 모는' 신인(神人)을 연상케 한다. 《楚辭》〈遠遊篇〉에는 '...여덟 마리 용을 몰아 구불구불 길을 가니 꽃혀진 운기는 바람에 펄럭이고, 무지개 그려진 채색 깃발을 세우니 알록달록한 오색 눈부시고 찬란하네'라고 하여 해모수의 '오룡거'와 유사한 분위기를 풍긴다.

《삼국유사》의 의상 설화에서 의상을 사랑한 선묘라는 여자가 용으로 변해

바다를 건너가게 해 주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용이 이끄는 배를 타고 극락 세계로 가는 '반야용선도'와 같은 불교 회화에서는 극락세계로 이끄는 용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로 보아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에 장식된 7~10마리의 용은 신선이나 최고 권력자의 이동 수단으로 해석되며, 사자를 이끄는 용의 수로 보아 주인공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금동신발 머리에 돌출되어 먼 하늘을 응시하는 용머리 장식은 마치 금동신발 곳곳에 표현된 용과 서수들을 이끄는 우두머리인 듯 선도하고 있다.

(3) 천계의 수호자 '괴수(怪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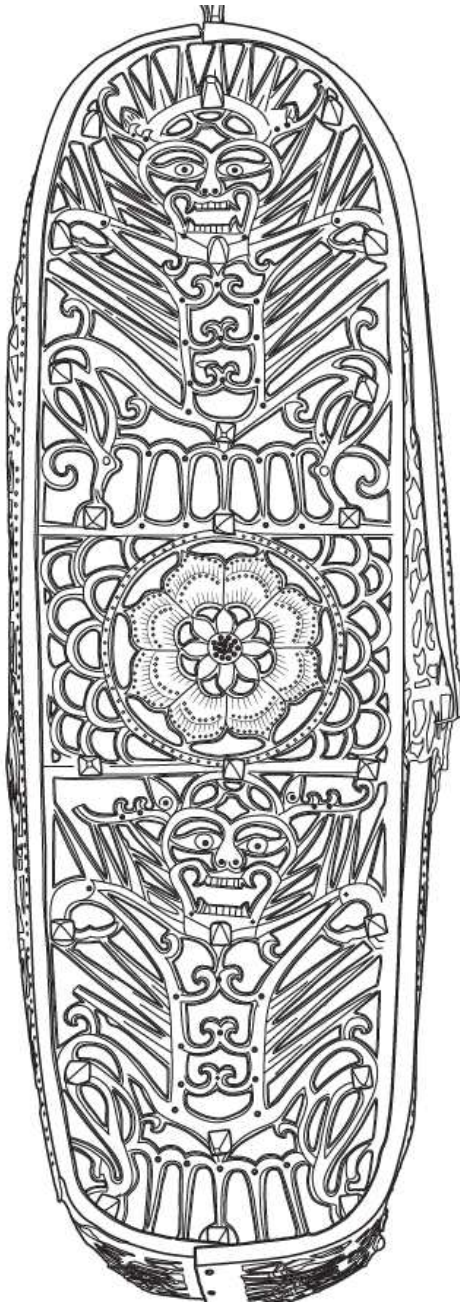
정촌고분 금동신발 바닥면에는 연화문을 중앙에 두고 위 아래로 괴수가 자리 잡고 있다. 괴수는 무릎을 'ㄱ'자로 굽히고 있어서 마치 앉아 있는 듯한 자세이다. 이 자세는 두 괴수 모두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다. 다만 자세히 보면 약간씩 다른 점이 있는데, 위쪽의 괴수는 머리 위쪽 연속삼각형 문양이 있지만 아래쪽의 괴수는 귀 혹은 뿔이 표현되어 있다.

얼굴은 눈알을 크게 표현하여 부릅뜬 눈을 표현하였고, 코는 콧구멍을 크게 하여 살아 있는 듯 벌렁이는 코를 표현하였다. 입은 소리를 치듯 크게 벌렸다. 입 안에는 치아를 그렸는데, 위 아래에 강렬한 송곳니를 표현하여 상대를 겁주고 있다. 팔은 양쪽으로 치켜 올리며 벌렸고 손은 안쪽으로 휘감았다. 다리는 넓게 벌려 앉은 듯한 자세인데, 위압감을 더해주고 있다. 얼굴과 몸체에서는 바깥을 향해 날카로운 직선으로 깃털이 뻗어 나온다. 신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기(瑞氣)를 표현하였다.

괴수는 중국 한 대(漢代) 이후 주로 고분 미술에서 확인되는 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식리총과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에서도 확인된다. 괴수상은 중국에서 주로 묘지, 화상전, 석비, 석관 등에서 확인되며,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괴수형과 상통하는 역사형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괴수상은 중국 고대 치우(蚩尤)에서 유래한다. 《산해경》에는 '치우가 무기를 만들어 황제를 치자 황제가 이에 응룡으로 하여금 기주야에서 그를 공격하게 하였다. 응룡이 물을 모아 둔 것을 치우가 풍백과 우사에게 부탁하여 폭풍우로 거침없이 쏟아지게 했다. 황제가 이에 천녀인 발을 내려 보내니 비가 그쳤고 마침내 치우를 죽였다. 발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없게 되자 그가 머무는 곳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고 이야기하고 있다.

치우는 진한대(秦漢代) 이래로 전쟁 승리와 복상(福祥)을 구하는 군신(軍神), 또는 전쟁의 신이면서 귀신의 수장격으로 믿어졌다. 다만, 치우에 대한 기록



<그림 17> 금동신발 괴수

은 《사기》, 《국어》, 《산해경》, 《상서》 등 춘추·전국시대 이후의 여러 서적을 통하여 전해지지만, 그 양태는 일치하지는 않는다.

정촌고분 금동신발 괴수는 신발 중앙에 새겨진 연화문의 위 아래에 배치되어 있다. 중앙의 연화문은 '천계'를 상징하며, 두 괴수는 천계를 위 아래에서 수호하는 수호신이었거나, '천계'로의 길을 향하는 사자(死者), 금동신발 주인공의 영혼을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보호하는 벽사(辟邪)라고 볼 수 있다. 고구려 삼실총 벽화에도 역사형 괴수와 함께 사신(四神)과 기린, 봉황 등이 표현되어 있다. 이들 사신과 서수는 천계(天界)와 인계(人界)를 오가는 존재로서 사자의 영혼을 천계로 호위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었다.

(4) 대지의 신 '일신양두(一身兩頭)'

정촌고분 금동신발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다른 형태의 일신양두(一身兩頭)가 표현되어 있다. 형태는 'U'자 모양이며, 양 끝에 머리가 있다. 얼굴은 마주 보고 있으며, 손을 맞잡고 있고 두 다리는 바닥에 대고 서있는 자세이다. 머리 위에는 관이 표현되어 있다.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일신양두는 고구려 고분인 천왕지신총(天王地神塚)에 그려진 지신(地神)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정촌고분의 일신양두는 손을 맞잡고 있는 듯하지만 천왕지신총의 지신은 벽화 일부가 손상되어 정확히 알 수 없다. 양쪽 얼굴은 사람 모습이며 머리에 관을 썼다고 하지만 이 역시 손상되어 명확하지 않다. 천왕지신총 지신의 몸에는 마치 뱀처럼 등 비늘과 배 비늘, 그리고 다리에는 털까지 묘사되어 있는데 반해 정촌고분 금동신발은 신체 내 자세한 문양은 없고, 원형의 반점



<그림 18> 금동신발 일신양두

만을 표현되었다. 조각 크기와 재료상의 차이로 보고 있다.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의 문양도 '지신(地神)'으로 보고 있다.

고구려 고분인 덕흥리고분에서는 지신과 유사한 문양이 '지축일신양두(地軸一身兩頭)'라는 먹글자와 함께 확인된다. 연결된 몸체의 양 끝은 상투를 쓴 사람

얼굴이며, 네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지축'은 대지의 중심축을 의미한다.

이처럼 대지를 관장하는 신 즉 '지신' 또는 대지의 중심인 '지축'을 금동신발에 표현하여 사자(死者)는 자신이 묻히고자 하는 장소를 '지신'에게서 부여받았음을 말하고 있다. 혹은 스스로가 '지신'임을 보여주고자 했거나, '지신'을 부리는 보다 상위의 권력자로서 세상의 중심임을 천명한 것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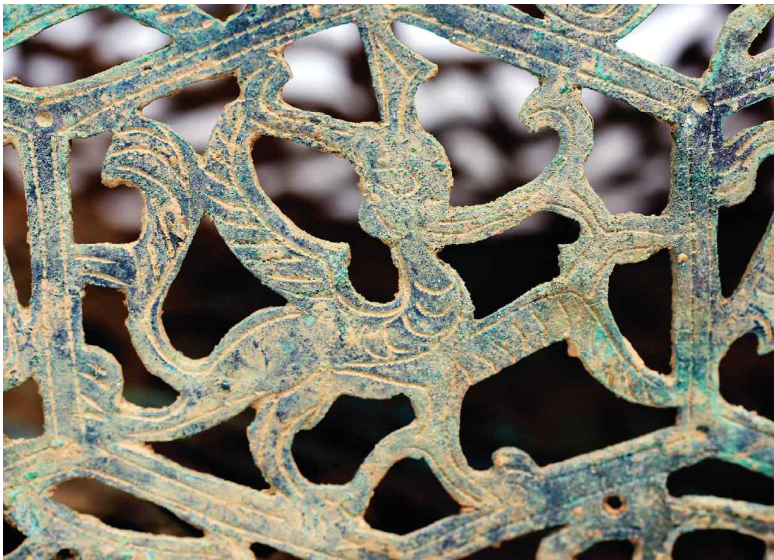
《山海經》〈海內經〉에는 '연유(延維)'라는 신에 대해 '사람의 머리에 뱀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좌우에 머리가 달려 있고 주자색 옷을 입었으며 전관(旃冠)을 썼다. 인주(人主)가 잔치를 벌여 그를 먹이면 천하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하였다. 사람 머리에 뱀의 몸, 좌우에 각각 달린 머리, 관을 쓰고 있는 점 등은 인신양두와 유사하다. 일신양두가 천하의 주인이며, 세상의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촌고분에 묻힌 이는 '지신' 혹은 '지축'에 버금가는 인물로 표현된 것이다.

(5) 천계에서의 영생 '인면조(人面鳥)'

정촌고분의 금동신발에는 얼굴이 사람이며 몸은 새 모양인 인면조(人面鳥)가 확인된다. 인면조신은 육각형 틀 안에 오른쪽 날개는 높이 펴고 반대쪽 날개는 반쯤 접어 아래로 내리고 있다. 다리는 바닥을 굳게 딛고 있으며 상체를 곳곳이 세워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얼굴은 눈, 코, 입이 정확치

않지만, 입은 음각선으로 나타난다. 머리 위쪽에는 삼각형의 관을 쓰고 있다. 몸체와 양 날개는 음각선으로 몸통과 날개 깃을 표현하였다. 몸통 뒤쪽에는 세 갈래의 꼬리가 이어진다.

인면조(人面鳥)은 '천 년을 산다'는 장생(長生)의 동물이며 고구려 덕흥리고분, 삼실총, 무용총 등 여러 고분에 이러한 인면조가 있다. 백제에서는 금동대향로, 무령왕릉 동탁은잔의 잔 받침부분에서 확인된다. 신라에서는 식리총 신발 바닥에 나타난다. 인면조는 삼국시대에 공유하는 길조이다.



<그림 19> 금동신발 인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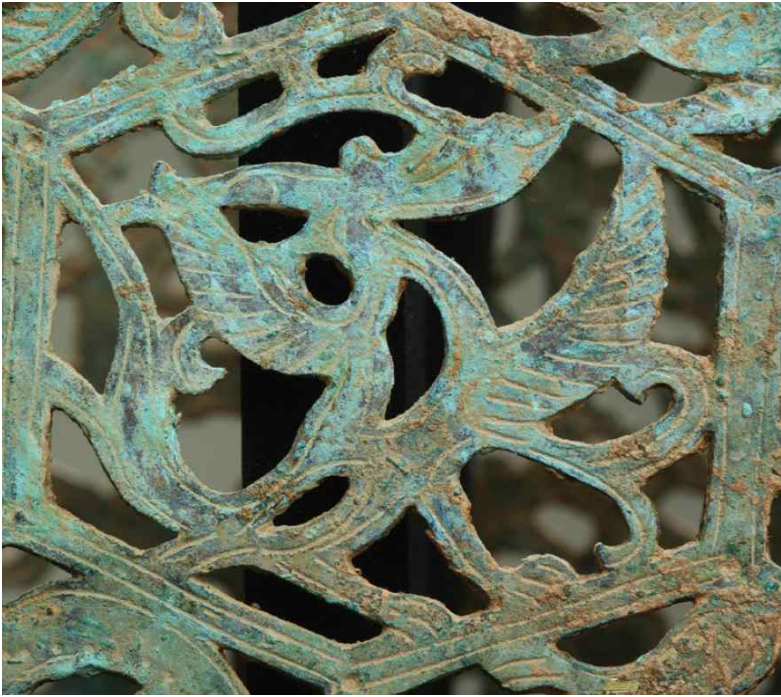
불교에도 '가릉빈가(迦陵頻伽)'라 하는 인면조(人面鳥) 형태의 신수가 등장하는데, 극락정토에 둥지를 틀고 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지만, 마음의 귀가 있는 자만 그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의 고대 신화와 전설에는 반인반수(半人半獸)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 인면조(人面鳥)도 많이 나타난다. 인면조는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것이 많지만, 백제의 금동대향로에 표현된 인면조는 머리 위에 상투를 가린 모자를 쓰고 있다.

인면조는 천추(千秋)와 만세(萬歲)로 나뉜다. 《抱朴子》〈內篇〉對俗篇에는 '천세(千歲)는 새고, 만세(萬歲)는 짐승인데, 모두 사람의 얼굴이며 몸은 새이다. 수명은 마치 그 이름과 같다'라고 하였다. 천세(千歲)는 천추(千秋)라고도 불리며, 만세(萬歲)라는 명칭과 더불어 장수(長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촌고분에 묻힌 사자(死者)는 영생을 기원하며 금동신발에 '천추'와 '만세'라는 인면조를 표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대 사회는 계세사상(繼世思想)이 강했다. 인간은 죽어도 영혼은 천계에 가서 길이 생을 누린다고 생각했다. 이승과 저승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승의 삶이 끝나면 곧바로 저승으로 가서 삶을 이어간다는 세계관이다. 그리고 금동신발의 인면조는 새로이 맞는 저승에서 지낼 사자(死者) 영생을 보장하는 상징이었다.

(6) 날개 달린 용, '응룡(應龍)'



<그림 20> 금동신발 '응룡'

정촌고분의 왼쪽 신발에는 날개가 있는 용인 응룡(應龍)이 새겨져 있다. 《산해경(山海經)》에는 '응룡이 남쪽 끝에 사는데 치우(蚩尤)와 과보(夸父)를 죽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리하여 하계에 자주 가뭄이 들었는데 가뭄이 들 경우 응룡의 모습을 만들면 큰 비가 내렸다'고 하였다. 또한 응룡은 전설의 황제의 측근

으로 치우와의 전투에서 구름을 몰아 비를 내리는 큰 공을 세운 신이다. 응룡은 첫 번째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천당으로 돌아갈 힘조차 없어지자 초연히 남방으로 와서 산택에 칩거했다고 한다. 용은 수성에 속하므로 그 거주지는 구름 기운과 수분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곳이어야 했다. 그리하여 남방에서 칩거에 든 것이다. 여러 해 뒤에 응룡은 회복되었고, 우가 수맥을 찾는 일을 도왔다. 응룡은 창조신인 여와가 응룡이 끄는 수레를 타고 구름 속을 지나 하늘로 떠났다는 신화도 있다.

이와 같이 응룡도 용과 마찬가지로 물을 관장하는 신수이면서 동시에 전쟁에 참여하고, 인계와 천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정촌고분의 금동신발에서 인계와 천계를 잇는 역할을 용이 담당하고 있다면, 응룡은 치수를 돕는 농경과 관련된 신이었거나 전쟁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

(7) 선계로의 인도자 '봉황(鳳凰)'

정촌고분 금동신발에는 날개를 펼치고 있는 봉황도 나타난다. 봉황은 경주 식리총과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에도 각각 확인된다. 봉황은 신조(神鳥)로, 기린, 거북, 용과 함께 사령(四靈), 즉 네가지의 신령하고 상서로운 동물 중 하

나이다. 봉황은 수컷을 鳳, 암컷을 鳳이라 하여 이를 합쳐 이르기를 봉황(鳳凰)이라 부른다.

봉황은 새의 우두머리로 이를 상징하기 위해 금동신발에도 작은 새들이 새겨져 있다. 이렇듯 봉황 주변에 새 무리가 있는 것은 고구려 고분 감신총의 벽화에서도 확인된다. 감신총에는 봉황으로 보이는 큰 새가 세 갈래의 긴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양쪽에 있고, 그 중앙에 9마리의 작은 새들이 모여 있다.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봉황과 유사한 문양이 무령왕릉 출토 용봉문환두 대도이다.

《산해경》 등에는 덕이 높은 천자가 태어나면 봉황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봉황이 동방 군자국에서 출현하며, 봉의 앞부분은 기러기, 뒤는 기린, 뱀의 목, 물고기의 꼬리, 황새의 이마, 원앙새의



<그림 21> 금동신발 '봉황'

깃, 용의 무늬, 호랑이의 등, 제비의 턱, 닭의 부리를 가졌으며, 오색(五色)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봉황은 동방 군자의 나라에서 나와서 사해(四海)의 밖을 날아 곤륜산(崑崙山)을 지나 지주(砥柱)의 물을 마시고 약수(弱水)에 깃을 씻고 저녁에 풍혈(風穴)에 자는데, 이 새가 세상에 나타나면 천하가 크게 안녕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천자가 거주하는 궁궐문에 봉황의 무늬를 장식하고 그 궁궐을 봉궐(鳳闕)이라고 했으며, 천자가 타는

수레를 봉연(鳳輦)·봉여(鳳輿)·봉거(鳳車)라고 불렀다. 중국에서 천자가 도읍한 장안(長安)을 봉성(鳳城)이라 하였고 궁중의 연못을 봉지(鳳池)라고 불렀다.

봉황은 사후 세계의 수호자이자 천계와 인계를 잇는 매개자이며 선계의 상징이었다. 중국의 호남성에서 발굴된 마왕퇴유적의 그림에는 주인의 승천을 기원하는 무당 머리위로 봉황과 용이 날고 있는 장면이 있다. 또 다른 인근 유적의 그림에는 주인공이 승천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 그림에서는 날개 달린 인간, 즉 선인이 등장한다.

봉황은 천계, 선계(仙界)를 상징한다. 도교에서 낙원은 곧 선계인데, 《山海經》에서 낙원은 곡식이 저절로 자라고, 자가자무(自歌自舞)하는 난조(鸞鳥)와 봉조(鳳鳥)가 존재하고, 불사약(不死藥)이 있는 곳이라 전하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묘사된 봉황과 그 밖의 신수, 상서로운 여러 문양은 사자(死者)

가 가려고 하는 천계 혹은 선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자의 수호자이자, 선계 나 천계로의 인도자라는 상징이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

(8) 오향(五行)의 정령(精靈), '기린(麒麟)'

정촌고분 금동신발에는 기린으로 추정되는 동물이 등장한다. 《說文解字》에는 기린을 큰 사슴의 몸과 소의 꼬리, 뿔이 하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동물들은 뿔이 없어 기린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이 있다. 두 귀가 뚜렷하고 날개가 표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새 종류는 아니며, 육상에서 활동하는 사슴과 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다. 기린이 아닌 다른 서수(瑞獸)로 보기도 하지만, 기린이 봉황과 동반한다는 문헌 기록에 따라 기린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린은 오행(五行)의 정령(精靈)이고, 사후세계의 인도자, 수호자이며, 덕과 인의 상징, 장수와 죽음을 예고한다고 하였다. 중국의 기남 화상석묘에 기린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 천계(天界)와 인계(人界)를 이어주는 인도자 역할, 천계의 입구에서 지키는 수문장 역할도 겸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림 22> 금동신발 추정'기린'

(9) 천계와 인계의 메신저 '새'

정촌고분 금동신발에는 새가 여러 마리 장식되어 있다. 머리에서 바로 이어지는 큰 부리, 동 그란 눈, 양쪽 날개 등으로 표현되었다. 부리는 상당히 강조한 듯 날카롭다. 날개는 'ㄱ'자로 꺾여진 것이 있는 반면 활짝 펴 비상하는 형태도 있다. 몸과 날개 그리고 꼬리부분은 음각선으로 장식하였다.

고대로부터 새는 태양을 상징하거나 사자(死者)의 영혼을 천계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매개자로서 자리잡고 있었다. 《山海經》에서는 까마귀가 태양을 지고 하늘을 운행한다고 하였고, 《淮南子》에는 태양 속에 준조(駿鳥)가 있

는데, 삼족오(三足鳥)를 이룬다고 하였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새가 표현되어 있는데, 태양을 상징하는 둥근 원[日象文] 안에 삼족오가 있다. 덕흥리고분, 무용총과 각 저총, 장천 1호분, 오희분 4호묘 등에는 태양에 삼족오, 달에 두꺼비가 묘사되어 있다.

새는 영혼의 인도자이며, 사자(死者)를 천계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에는 '큰 새의 깃털로 장사지내는데, 그것은 사자(死者)가 새처럼 날아다니라는 뜻 이다'라고 하였다.

영산강유역의 고분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형토기(鳥形土器), 보다 구체적인 형상으로 빚은 가야고분의 조형토기 또는 오리모양 토기, 신라 금관에 장식한 새 등이 그것이다. 또한 나주 송제리고분 등에는 토기받침에 작은 새를 장식하기도 하였다.

정촌고분 금동신발과 가장 유사한 새는 무령왕릉 출토 동탁은잔의 새이다. 무령왕릉 동탁은잔에는 은잔의 받침대 상면에 새를 비롯하여 인면조, 거치문 등이 표현되어 있다. 여기에 표현된 새를 보면 호형의 날카로운 부리, 음각선을 이용한 표현방법, 날고 있는 장면의 측면형태 등은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새와 유사하다.

4. 맺음말

신화(神話)는 고대인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인간과 자연을 어떻게 인식하였고, 인간의 삶과 죽음, 여망과 자괴를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초자연적 존재에 의지했는가를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또한 신화를 통해 인간의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와 반역, 불가항력의 운명, 반항, 환상 그리고 희망을 한 단면이나마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신화는 인류 정신문화의 모태이자 근원이라고도 정의하고 있다.

고대사회의 인간은 기술문명의 한계로 말미암아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에 대해 과학적 분석이나 인식을 가질 수 없었다. 자신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보이지 않는 어떠한 신비적인 힘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내재되면서 신화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신화에는 다양한 상상 동물이 등장한다. 현실세계에 실존하는 동물이 아닌, 인간의 상상으로 탄생한 동물이다. 인간들은 오랜 역사 동안 각자의 염원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상상력으로 창조된 동물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당시의 세계관, 우주의 질서 속에서 각 영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믿어왔다.

나주 복암리고분의 물고기장식 금동신발과 전총고분의 각종 서수가 새겨진 금동신발은 당시인의 신화적 상상력의 표현체이다. 그 연원이 비록 중국의 각종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이라는 테두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고대인들이 그들이 삶을 꾸리면서, 그리고 맞닥뜨렸던 인간계와 자연계의 현상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러한 보편성 때문에 인접 사회 어디에서나 관통될 수 있고 또한 융합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고분에 부장된 금동신발의 상상 동물은 고분의 주인공을 위해 신발을 만든 이, 고분에 묻힌 이, 나아가 당시 사회가 가졌던 생사관과 우주관을 대신하여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성윤길, 2019,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문양 분석과 의미>, 《고대 동아시아의 금동신발과 금동관》, 국립나주박물관.

정재서, 2006, 《한국 도교의 기원과 역사》, 이화여대출판문화부.

정재서, 2014, 《동아시아 상상력과 민족 서사》, 이화여대출판문화원.

제3강좌 :

**영산강유역 전방후원형고분
출토유물 및 피장자 성격**

이 범 기

(전남문화재연구소 소장)

영산강유역 전방후원형고분 출토유물 및 피장자 성격

이 범 기(전남문화재연구소 소장)

- I. 머리말
- II. 전방후원형고분 분포현황과 출토유물
- III. 유물로 살펴본 피장자 성격
- IV. 맺음말(향후 연구과제)

I. 머리말

지리적으로 영산강유역이 위치한 전남 서·남해안지역은 고대부터 바닷길로 활용되면서 활발하게 진행된 교류에서 중요한 길목에 해당하며,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많이 확인된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과 다양한 물질자료가 부장된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는 전방후원형고분⁴⁾은 그 형태가 독특하고 특정시기에 축조되다 소멸되는 등 성격이나 축조배경에 많은 관심과 의문점이 있다. 특히 조사된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상도 재지계(영산강), 일본(왜), 중국, 백제 등 다양한 유물의 조합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덤의 주인공인 매장주체에 대한 성격 연구가 현재까지도 미진한 상태로 영향으로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한다.

전방후원형고분은 방형부와 원형부로 구분되는 분구(墳丘)가 합쳐져 단일 분구의 형태를 갖춘 고분을 칭한다(국립나주박물관, 2019). 전방후원형고분은 고대 일본(왜) 야마토정권의 대표적인 지배계층의 묘제로 일본 동북지방을

4) 고분에 대한 명칭은 '전방후원분'을 비롯하여 '장고분', '장고형고분', '전방후원형고분' 등 개별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다양한 용어를 선택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전방후원형고분'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제외하고 일본 전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전방후원형고분 고분의 독특한 외형만큼 출토되는 유물들도 다양한 양상이 혼재하며 부장양상도 매우 풍부하게 확인하게 되는 편이다. 이러한 전방후원형고분에 대해 현재 학계의 연구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연구의 주요 쟁점은 고분의 피장자에 대한 주체세력과 성격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전방후원형고분의 분포 현황과 출토유물을 살펴보고 피장자의 성격과 신분을 나타내는 위세품(*prestige goods*)⁵⁾ 을 중심으로 무덤의 주인공 성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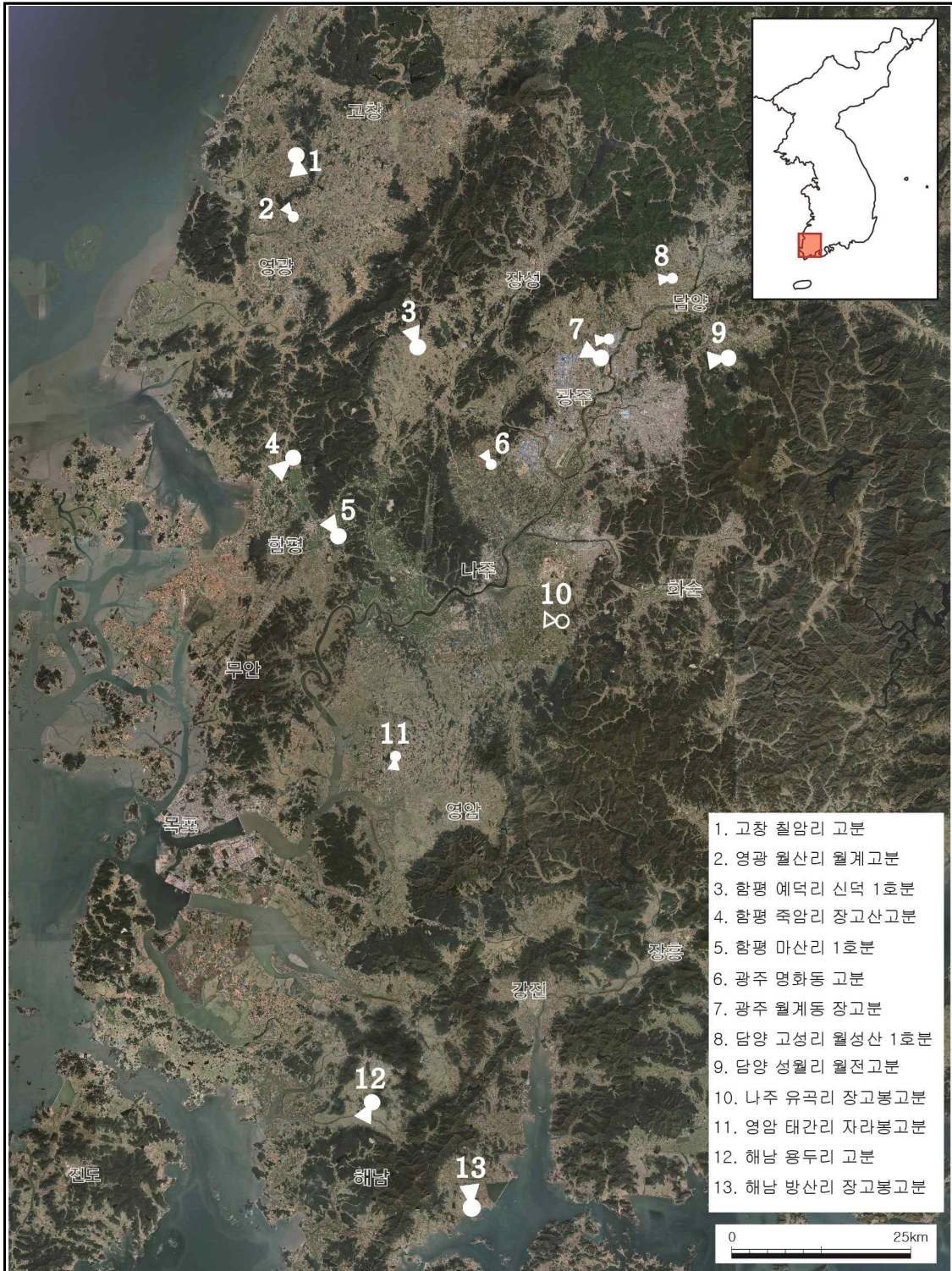
II. 전방후원형고분 분포현황과 출토유물

1. 분포 및 제원 현황

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형고분은 1984년 해남 방산리 장고봉고분의 발견을 시작으로 2000년 고창 칠암리고분이 발견되면서 그 분포 범위가 전북 서남부까지 확대되었다. 전방후원형고분의 분포에서 가장 큰 특징은 수로 교통로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산강 유역 토착세력의 최대 거점인 나주를 중심으로 한 웅관묘의 핵심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최근 강진~광주간 건설공사 과정에서 나주 관내에서 처음으로 전방후원형고분이 보고되기는 하였으나, 그 위치가 영산강 지류인 나주시 외곽으로 앞서 전술한 특징은 여전히 유효하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전방후원형고분은 전북 고창지역을 포함한 영산강유역권에만 분포하며 총 15기가 보고되었다. 전방후원형고분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1991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기에 대하여 시굴 혹은 제한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인 정밀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광주 월계동(2기), 명화동고분, 함평 예덕리 신덕, 영암 태간리 자라봉, 해남 용두리 고분 등 극히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5) 위세품에 대한 정의는 필자의 논고(이범기, 2016·2019) 및 전북대학교 김승욱교수(김승욱, 1999)와 호남문화재연구원 임영진이사장(임영진, 2020)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고분의 분포상 특징은 나주를 중심으로 한 용관고분의 중심지역인 나주 북암리 고분군과 반남고분군을 기준으로 반경 20km 범위에는 전방후원형고분이 없다. 그러나 나주 용관고분이 밀집한 반남고분군의 범위를 벗어나면 영암 태간리 자라봉고분, 함평 마산리 표산고분, 광주 명화동고분, 광주 요기동 조산고분이 분포하고 있으며, 반경 40~60km 범위에는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함평 죽암리고분, 광주 월계동 1호·2호분이 위치한다. 영산강 상류의 담양, 서북부 고창·영광, 서남부 해남의 전방후원형고분들은 모두 반경 80km를 전후한 지점에 위치한다.



<그림 1> 영산강유역 전방후원형고분 분포도(출처 : 이문형, 2022)

다음으로 고분의 입지는 평지, 구릉정상, 구릉능선, 구릉사면으로 구분되는데 함평 죽암리고분을 제외하면 방부는 모두 경사면 위쪽, 원부는 경사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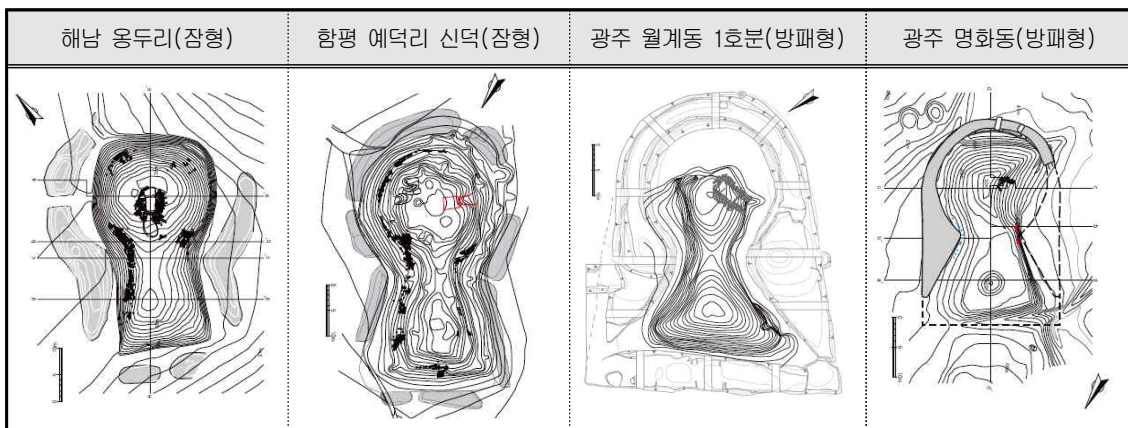
래쪽을 향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방후원형고분은 아래에서 바라보면 원부가 앞이고 방부가 뒤인 것처럼 보인다. 현재까지 조사된 전방후원형고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영산강유역 전방후원형고분 주요 현황표

유적명	입지	장축방향	규모(m)	매장시설(cm) 길이×너비×높이	매장시설	층석	주구	출토유물	비고	
고창 칠암리고분 (대한문화재연구원, 2017)	산지 능선	남-북	56	220×180×100	수혈식 석실	●	방패형 (?)	개배, 기대, 십금구 등	부분 조사	
담양 성월리 월전고분 (영해문화유산연구원, 2015)	층적 평야	동-서	47	410×(260)×40	횡혈식 석실	●	방패형 (?)	개배, 장경호, 고배, 찰감편 등	발굴	
광주 월계동 장고분 (전남대학교박물관 , 1994·2003)	1호 2호	구릉 말단부	서북 - 동남	44	455×300×290	횡혈식 석실	?	방패형 (?)	개배, 고배, 철촉, 금제이식, 원통형 토기, 목제식룬 등	발굴
		동-서	33	420×245×105	?		방패형			
광주 명화동고분 (국립광주박물관, 1996·2012)	구릉 능선	북서 - 남동	33	.	횡혈식 석실(?)	?	방패형	개배, 금동이식, 철촉, 십금구, 원통형토기 등	발굴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국립광주박물관, 2021)	평지성 구릉	북서 - 남동	50	300×245×250	횡혈식 석실	●	잠형 (蠶形)	금동관편, 금동신발편, 개배, 고배, 금제이식, 마구류(재갈, 등자 등), 장식칼, 철모, 구슬류, 찰감편 등	발굴	
함평 죽암리고분 (전라남도문화재단 전남문화재연구원, 2022)	구릉	북동 - 남서	73.4	?	횡혈식 석실(?)	?	?	원통형토기편 등	시굴	
함평 마산리 1호분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2015)	구릉	북서 - 남동	46	523×266×278	횡혈식 석실	●	.	전문도기편, 금제장신구, 유공광구소호 등	발굴	
영암 태간리 자리봉고분 (대한문화재연구원, 2015)	층적 평야	남-북	37	326×236×190	횡구식 석실		잠형	개, 이식, 대도, 철모, 철부, 원통형 토기, 목제식룬 등	발굴	
해남 용두리고분 (국립광주박물관, 2011)	평지성 구릉	북동 - 남서	41.25	349×213×181	횡혈식 석실	●	잠형	개배, 고배, 기대, 전문도기편, 구슬, 대도, 철촉, 성시구 등	발굴	
해남 방산리 장고봉고분 (마한문화연구원, 2021)	구릉 능선	남-북	76	460×240×200	횡혈식 석실		잠형 (?)	찰감편, 개배, 소옥, 은제장식편, 금제 성시구편, 철촉편 등	발굴	
영암 월산리 월계 1호분 (전남문화재연구원, 2021)	구릉 능선	북서 - 남동	41.5	?	?	?	?	.	시굴	

분구의 규모는 전체 길이를 기준으로 소형은 40m 이하, 중형은 40~60m,

대형은 60m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남 방산리 장고봉고분이 가장 큰 76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구의 축조는 토낭을 이용한 제방형성토, 구획성토 등의 기술이 확인되며, 분구 사면에서는 좁석시설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분구의 외연을 따라 시설된 주구는 그 형태에 따라 방패형과 잠형(웅덩이형)으로 구분되며, 내부와 경계지점에서는 원통형토기를 비롯한 제의(祭義) 성격의 토기와 함께 목기(목제식륜)가 출토되기도 한다.



<그림 2> 영산강유역 전방후원형고분 분구 형태

2. 매장시설과 출토유물

1) 매장시설

조사된 전방후원형고분 10기의 매장시설 가운데 고창 칠암리(수혈식 석실)와 영암 태간리 자라봉(횡구식 석실) 고분을 제외하고 모두 횡혈식 석실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분의 매장시설로는 횡혈식 석실을 주로 채택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매장시설인 횡혈식 석실은 모두 고분의 원형부에 축조되었으며 대부분의 석실이 중앙부에서 한쪽으로 약간 치우친 지점에 조성되어 있다. 분구와 동시에 축조되어 석실은 모두 지상에 위치하며 평면 형태는 장방형, 벽체는 하단부에 장대석(요석)을 놓고 그 상부에 할석을 쌓은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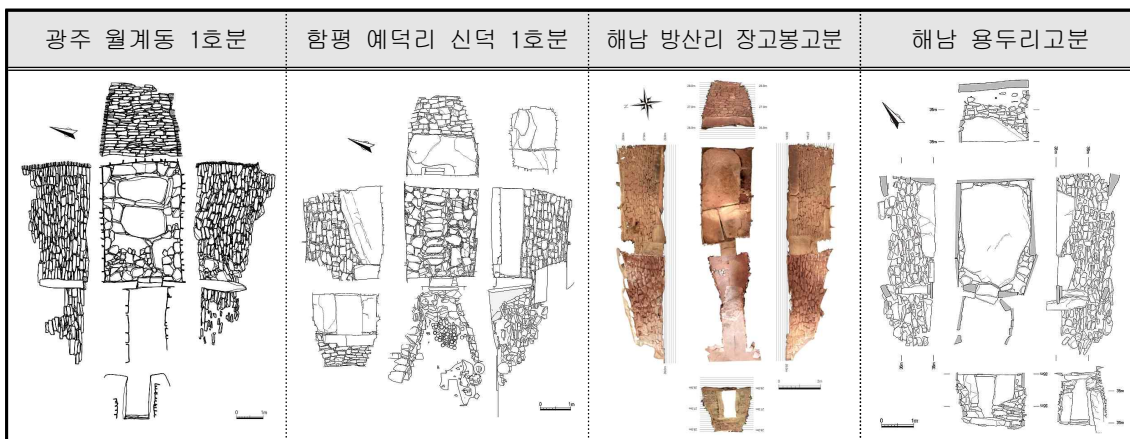
현실의 입구는 중앙에 시설하였으며, 현문의 구조는 문틀식으로 연도와 묘

도가 비교적 긴(長) 특징이 있다. 함평 예덕리 신덕과 해남 방산리 고분에서는 현실의 벽면과 천장에서 붉은 주칠이 확인되었다. 고분의 횡혈식석실(분) 규모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함평 마산리 1호분(13.9m²)>광주 월계동 1호(13.6m²)>해남 방산리 장고봉고분(11.0m²) 순으로 확인된다.

<표 2> 영산강유역 전방후원형고분 매장시설 주요 특징

유적명	위치	평면 형태	평면비	축조 석재	연도 위치	연도 형식	현실 / 연·묘도 길이	묘도	비고	
담양 성월리 월전	지상식	장방형(?)	·	활석	중앙(?)	·	·	·		
광주 월계동 장고분	1호	지상식	장방형	1.51:1	판석+활석	중앙	문틀식(?)	1.51:1	·	
	2호	지상식	장방형	1.71:1	장대석+활석	중앙	문틀식	1.71:1	●	
광주 명화동	지상식	·	·	·	·	·	·	·		
함평 예덕리 신덕 1호분	지상식	장방형	1.22:1	장대석+활석	중앙	문틀식	0.93:1	●	주칠	
함평 마산리 1호분	지상식	장방형	1.96:1	장대석+활석	중앙	문틀식	1.34:1	●		
해남 용두리고분	지상식	장방형	1.63:1	장대석+활석	중앙	문틀식	2.49:1	●		
해남 방산리 장고분	지상식	장방형	1.91:1	장대석+활석	중앙	문틀식	1.02:1	●	주칠	

다음으로 전방후원형고분의 횡혈식석실은 영산강유역의 석실과 같은 속성의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주요 속성은 일본 북부 규슈지방에서 5세기 후엽에 정형화된 북부 '규슈형 석실'과 구마모토(熊本)를 중심으로 중부 규슈에서 유행한 '히고형 석실'에서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낙중, 2021). 특히 석실 내부에 석관의 설치나 일부 석실의 주칠(朱漆)은 백제에서 확인되지 않는 왜계(倭系) 석실의 큰 특징으로 보고 있다.



<그림 3> 영산강유역 전방후원형분 석실 현황

2) 출토유물

전방후원형고분에서는 매장시설을 포함하여 분구 및 주구 내부에서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데 피장자의 성격에 대한 견해만큼이나 유물의 성격에 대한 견해도 복합적이다. 유물은 기종과 성격에 따라 백제계-재지계-왜계-가야계 등으로 구분될 만큼 다양하나 상대적으로 매장시설의 내부에서는 도굴 등으로 인해 출토된 유물은 매우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 영산강유역 전방후원형고분 출토 유물

일반적으로 전방후원형고분은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는 다른 고분에 비해서 부장품이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편이다. 대표적으로 고분에서 출토되는 백제계 유물로는 금동관, 금동신발 등의 위세품을, 재지계로는 전남지역의 특징적인 기종의 대표 격인 유공광구소호를 비롯한 개배 등의 토기류 등을 들 수 있다. 왜계 유물로는 갑주(甲冑)나 모신의 단면이 삼각형인 철모(三角穗式鐵鉢), 금속을 꼬아서 U자 모양으로 만든 금구를 부착한 장식대도(곤환두대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출토되는 토기중에서 일부는 일본 스에키와 백제, 대가야계통의 토기도 함께 출토되고 있다.

특히 주구에서 출토된 목기류 가운데 광주 월계동 1호분의 장승형 목제식륵과 영암 태간리 자라봉 고분 출토 개형 목제식륵 등은 일본 후쿠오카현 가마츠카 고분 출토품과의 유사성을 들어 북규슈~서북규슈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최영주, 2018). 이외에도 일본 전방후원형고분의 특징적인 토기인 '하니와'와 동일한 용도로 현지에서 제작한 위 '원통형토기' 등으로 불리는 특수 기종의 제의토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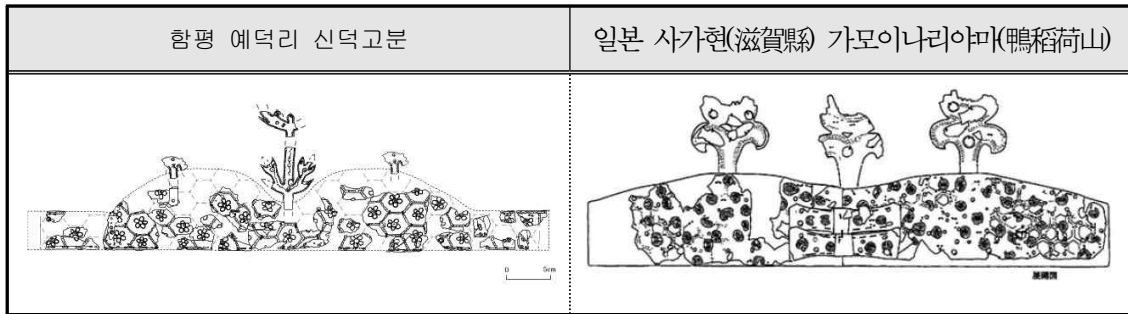
1990년대 초반 조사한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의 종합·분석 보고서가 최근 간행되어(국립광주박물관, 2021) 출토유물에 대한 부장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신덕고분에서는 피장자를 안치한 목관편(일본산 금송)과 금동관(모), 금동식리편 등의 다양한 위세품, 장식대도(곤환두대도), 철모(삼각수식철모), 철촉(장경도자형), 갑주(찰갑)를 비롯한 다량의 무기류와 마구류(등자, 재갈, 운주 등)가 출토되었다. 비록 일부 유물들은 도굴 등의 이유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있으나 석실내 출토품이 정확하기 때문에 전방후원형고분중에서 다양한 유물들이 가장 많이 확인되고 출토지가 정확한 예덕리 신덕고분 출토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위세품(장신구류)				무기류							마구류			
금동관/관모	금동식리	금제이식	구슬류	대도	철도	철모	철촉	성시구	투구	찰갑	재갈	등자	운주	십금구
●	●	●	5,709점	3	2	3조	●	●	●	●	●	●	●	●
금동관				무기류							마구류			
														

<그림 5>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주요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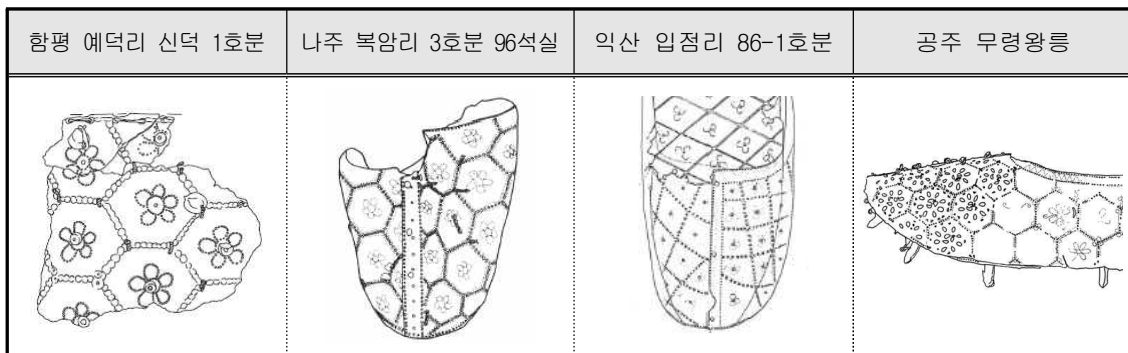
고분 출토품중에서 가장 상위 계급에 해당되는 금동관은 입식과 대륜편이 출토되었다. 대부분 파편으로 수습되었으나 잔존하는 편을 통해 형태나 세부 기법 등은 파악할 수 있다. 입식부는 중앙부 가지로부터 좌우로 뻗은 형태로 문양의 표현은 점열기법을 사용한 초화형이나 수지형이고 대륜은 광대이산식관(廣帶二山式冠)으로 문양은 점열기법으로 육각형문을 구획하고 내부에 5엽의 연꽃을 표현하였으며, 중앙에는 구슬을 부착하여 장식하였다. 전체적인 형태는 일본 구마모토현(熊本県) 에타후나야마(江田船山) 고분, 사가현(滋賀縣) 가모이나리아마(鴨稻荷山) 고분 출토품과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광대이산식관의 경우 그 시원지를 일본으로 보았으나 나주 신촌리계통의 금동관인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금동관을 시원으로 보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어 그 기원의 문제는 아마도 고대 영산강유역의 마한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범기, 2019).



<그림 6> 고대 한일 광대이산식관(廣帶二山式冠) 비교 검토

금동신발 역시 육각형문에 점열기법으로 표현한 평판과 더불어 일부 투조판이 확인된다. 금동신발의 경우 문양이나 시문기법에 있어 익산 입점리(86-1호분)-나주 북암리 3호분 96석실 출토품과 유사하다. 문양면에서는 당시 백제(웅진시기)에서 유행했던 전통 방식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공주 무령왕릉에서 문양의 기술력에 대한 정점을 이룬다.



<그림 7> 백제 웅진시기 금동신발 세부 문양

다음으로 곡옥, 호박옥, 연리문구슬, 중층유리구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식구슬들이 5,709점이 출토되었다. 특히 중층유리구슬은(금박유리구슬) 주로 백제 권역에서 유통되며 일본열도 내에서도 백제와 관련된 유적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오영, 2014). 목관의 수종 분석 결과 백제 왕실에서 주로 사용한 금송(金松)으로 밝혀졌으며(국립광주박물관, 2021), 주로 백제 석실분에서 확인되는 은두정(銀頭釘)의 사용, 관대의 설치 등으로 볼 때 백

제와의 연관성이 매우 깊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투구를 포함하여 갑옷과 대도, 성시구 등 다량의 무기류가 출토되었다. 대도 중에는 끈환두대도를 비롯하여 철도와 철모, 특히 화살촉은 약 200여점 이상이 출토되었다.



<그림 8> 함평 예덕리 신덕 1호분 출토 장식대도(끈환두대도) 비교 자료(이범기, 2016 수정 인용)

장식대도의 경우 전방후원형고분에서는 환두부에 다양한 장식의 대도 등의 존재는 잘 확인되지 않고 유일하게 끈환두대도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에서만 출토되었다. 끈환두대도의 경우 일본에서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그림 9> 함평 예덕리 신덕 1호분 隅抉尻系式 세부모습

기나이(畿内) 지역과 군마(群馬) 및 후쿠오카(福岡)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에서 출토된 대도 중에서 병부부분의 경우 제작 방식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양식은 일본에서 확인되는 대도에 나타나는 형식으로 관부 부분은 우결고계식(隅抉尻系式)으로 분류되는 제작기법이 확인되고 있다.

갑주는 찰갑이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과 해남 장고봉고분에서 출토되며, 담양 성월리고분에서는 판갑계통인 종장판주가 확인된다. 마구류는 표비·운주·등자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에서 공반되었고 고창 칠암리고분에서는 운주가 출토되었다. 예덕리 신덕고분과 고창 칠암리고분에서 확인된 마구류(운주

와 십금구)는 재질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제작기법과 형태가 매우 유사하여 백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철모는 직기형 철모가 대부분이며 이 가운데 투겁 단면이 팔각형이고 은으로 장식된 것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에서만 출토되었다. 철촉은 도자형, 사두형 장경촉이 대부분이며 기타 V자형과 역자형이 각각 해남 용두리고분과 광주 월계동 1호분에서 출토되었다.

금제이식은 광주 월계동 1호분, 광주 명화동고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영암 태간리 자라봉고분 등에서 확인되는데 모두 수하 장식은 없고 주환만 확인되는데 영산강유역 고분에서 일반적으로 출토되는 형식과 동일하다. 이 밖에도 성시구, 철검, 철부 등이 있고 목관과 관련된 관못, 꺾쇠, 관고리 등이 확인된다. 광주 월계동 1호분과 2호분에서는 은으로 장식된 관못,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에서는 관못과 함께 관고리가 확인되며, 영암 태간리 자라봉고분에서는 꺾쇠, 광주 명화동고분에서는 관못 등이 확인된다.

Ⅲ. 유물로 살펴본 피장자 성격

전방후원형고분 피장자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견해로 재지세력설(在地勢力說)과 왜인설(倭人說)로 크게 구분되며, 그 원인이나 배경 등은 다양한 관점에서 세분되어 제기하고 있다.

먼저 재지세력설을 주장하는 연구자간 세부적인 조금씩 다르지만 백제에 종속되지 않고 있던 영산강 유역의 재지수장층이 백제의 진출에 대항하는 가운데 왜와 동맹관계를 맺고, 교류 과정에서 이를 나타낸 일시적인 정치적 표상으로 전방후원형고분의 묘제를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박천수, 2007). 이는 영산강 유역권 외곽에 자리하고 있던 토착세력들이 남하하는 백제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왜와 교류하면서 도입했다고 보는(임영진 외, 2018) 견해이다.

최근 영산강 유역 전방후원형고분의 축조시기에 해당하는 일본 고분시대

중기 후반~후기에 걸친 시기의 일본에서는 새로 고분군이 조영된 지역이 없다고 한다. 즉, 일본 각지의 대부분의 중심적 고분군은 전기 혹은 중기 초에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후기에 새로운 집단이 대두되거나 중앙세력이 진출했음을 말해주는 정황은 없다(山本孝文, 2020). 따라서 한국의 전방후원형고분은 매우 특수한 경우로 일본열도의 고분 축조 체제의 흐름 속에서 조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어필의 산물로 볼 수 없다(山本孝文, 2020)고 한다.

친백제 재지세력설 역시 백제 왕권과의 연계하에 친백제 성향의 현지인 혹은 왜인의 무덤으로 보는 견해이다. 다만 일본 긴키(近畿)지역에서 활동하던 백제지역 출신들이 곤지와 동성왕 귀국시 동반했던 세력들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서현주, 2021).

왜인설은 전방후원형고분의 피장자가 왜인이라는 큰 틀에서는 일치하지만 구체적으로 세분해보면 그 성격에 따라 왜계백제관료설, 이주왜인설, 망명왜인설로 구분할 수 있다.

왜계백제관료설은 백제가 영산강 유역의 재지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백제 중앙에서 일시적으로 각지에 파견된 왜인의 무덤으로 보는 견해이다. 즉, 백제는 이 지역 최대 토착세력의 거점인 나주 반남지역은 재지수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그 주변은 외곽에서 포위하듯이 전방후원형고분 피장자와 같은 왜계의 백제세력을 이식하여 재지 호족세력을 견제하는 양면정책을 취하였다(박천수, 2007).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형고분이 웅진기에 한하여 조영된 것은 한성 함락에 의해 일시적으로 통치 기구가 와해된 백제가 웅진천도 이후 곧바로 자력으로 남방을 통치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박천수, 2007). 이러한 점에서 영산강 유역 전방후원형고분의 피장자는 백제 왕권에 신속하면서 백제 왕권과 왜 왕권 간의 외교에 활약한 『일본서기』 킨메이기(欽明紀)에 보이는 '왜계백제관료'의 원형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이들 피장자는 토착세력의 견제와 일본열도와의 외교는 물론 대가야 공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 지역에 파견된 것으로(박천수, 2007) 인식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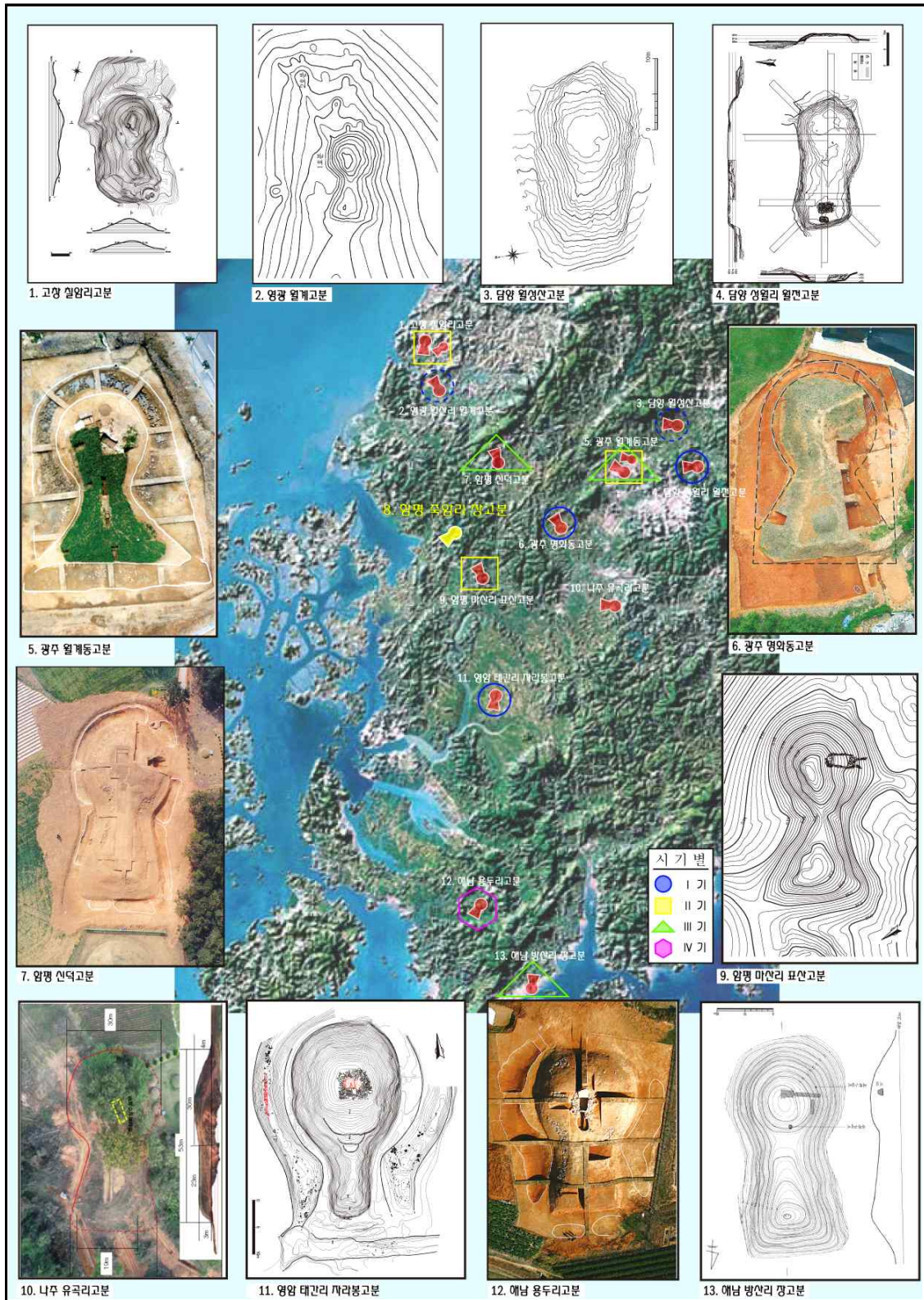
있다.

망명왜인설은 일본열도의 야마토정권과 이와이(磐井)세력 간의 갈등을 그 주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임영진, 2021). 북규슈식 석실이 성행하였던 북규슈지역이 5세기말 이와이 세력에게 병합당하면서 북부 규슈세력이 각각 자신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던 한반도 남부지역과 일본열도 각 지역으로 망명함으로써 해당지역에 북규슈식 석실을 남기게 되었다. 그러나 히고식 석실을 사용하고 있던 이와이 세력은 529년 야마토정권에 병합되면서 이미 야마토정권이 장악해 버린 일본열도에서는 더 이상 망명처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에 야마토정권과는 무관한 한반도에서 망명처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히고형 석실은 일본열도에서는 확산되지 못하고 영산강 유역으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이와이 세력과 관련된 히고식 석실을 가진 전방후원형고분과 원분들이 영산강 유역에 국한된 것은 결과적으로 이와이 세력의 망명을 받아준 결과이다. 그러나 영산강 유역권을 주도했던 나주 반남세력의 입장에서는 일본 망명객들이 독자적인 세력 형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외곽지대에 분산 수용함으로써 이를 해결하였다. 분산 수용의 전략속에는 백제와의 경계지역에서 백제의 남하를 저지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이며 백제의 입장에서는 마한 제국 병합에 앞서 전방후원형고분의 피장자를 포섭하는 것이 유리하였으므로 여러 가지 선물을 제공하였는데 전방후원형고분에서 출토되는 백제계 유물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말해주는 것이다(임영진, 2021).

이외에 영산강 유역의 마한세력이 백제의 지배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본열도에 이주해 있던 마한 이주민들에게 요청하고 이주민이 이에 호응하여 영산강 유역으로 귀환하여 축조한 무덤으로 본 견해(박중환, 2020)도 있다.

<표 3> 영산강유역 전방후원형고분 피장자에 대한 학설(이문형, 2022, 수정·보완)

구분	목 적	연구자	내 용
재지세력설	교류	土生田純之(1996·2000)	독자적인 영산강 재지세력이 일본 규슈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도입
		岡内三眞(1996)	백제/왜/가야 세력과 대등한 재지세력이 왜와 교류하면서 도입
		박영훈(2009·2020)	독자적 정치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세력이 왜와 교류 및 자발적 도입
	정치적 산물	박순발(2000)	백제와 직접지배관계의 과도기적 시기에 재지세력에 의한 일시적 산물
		이정호(2001)	기존 웅관묘와의 계승적 관계에서 백제와 왜의 복합적 소산으로 재지세력에 의해 도입
		최성락(2004)	백제 영향력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세력 과시하기 위해 채택
		김낙중(2009)	백제의 영향력이 약화, 영산강세력이 왜와의 교류에 따른 이익을 담보로 재지세력의 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도입
		최영주(2017·2019)	백제와 왜왕권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는 적극적인 모색 방법 차원에서 도입
		박중환(2020)	백제의 지배 압력으로부터 영산강유역 마한세력의 중심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마한계통의 이주민 집단들에 요청, 이에 호응하여 귀환하여 축조
		이범기(2020)	지역 수장층으로 해상교역과 관련된 재지계 무장세력
친백제재지세력설	백제지배 하	신대곤(2001)	왜와의 교역중사지인 영산강유역 수장이 우월성과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도입
		우재병(2004)	영산강유역 일부 수장들에게 왜와의 동맹관계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백제가 채택하게 한 것
		서현주(2007)	영산강유역을 포함한 백제지역 출신으로 일본 近畿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근지와 동성왕 귀국에 동반했던 세력들에 의해 조영된 것
		박형열(2020)	웅관고분의 대체 묘제 필요하여 재지세력이 추가장이 가능한 전방후원분을 조영
		오동선(2021)	친백제 성향의 현지인 혹은 왜인의 무덤
	정 체 성	연구자	내 용
왜인설	왜계 백제관료	주보돈(2000)	영산강유역의 재지세력을 견제 목적, 백제 왕권에 의해 파견된 왜계 백제관료
		山尾幸久(2001)	웅진기에 왜국으로부터 이주하여 백제 왕의 신하로서 영산강유역에 대한 영유화 정책에 수반하여 파견된 왜국의 유력자
		박천수(2002·2011)	백제가 군사적인 활동을 위해 귀국하지 않은 규슈지역의 수장과 군사단을 영산강유역에 배치, 백제 중앙에서 일시적으로 이 지역에 파견한 왜계백제관인
		이남석(2016)	백제 구원군으로 동원된 북부 규슈집단이 웅진천도를 기회로 신흥세력으로 전환되어 일시적으로 한반도에 머물면서 축조한 무덤
		정재윤(2010·2020)	백제가 웅진 천도후 영산강유역에 왕후를 파견, 지배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동성왕과 함께 왜에서 백제계 도왜인 혹은 왜인의 무덤
	이주 왜인	홍보식(2005)	영산강유역에 정주한 왜인, 집단간의 교역, 이주를 강조하면서 백제산 위신재의 존재에 의거 왜인들은 정주 후 백제 중앙지배를 받았을 것으로 인식
		김규운(2017·2020)	백제 중앙과 왜 야마토정권의 교섭에서 역할을 했던 규슈지역 사람에 의해 축조
		土田純子(2018)	북규슈 제세력에 속한 왜인을 중심으로 한 교역자집단
		이정민(2020)	단독분으로 출현하고 있어 재지세력의 도움을 받아 축조된 왜인 무덤
	망명 왜인	임영진(2018·2021)	백제의 영역화과정에서 북부 규슈지역으로 이주한 마한세력 등을 포함한 사람들이 영산강유역으로 다시 망명하여 조영한 것
박중환(2020)		백제의 지배 압력으로부터 영산강유역 마한세력의 중심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마한계통의 이주민 집단들에 요청, 이에 호응하여 귀환하여 축조	



<그림 10> 영산강유역 방후원형분 시기별·지역별 분포상(필자 작성)

전방후원형고분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유물 중에서 피장자의 신분을 나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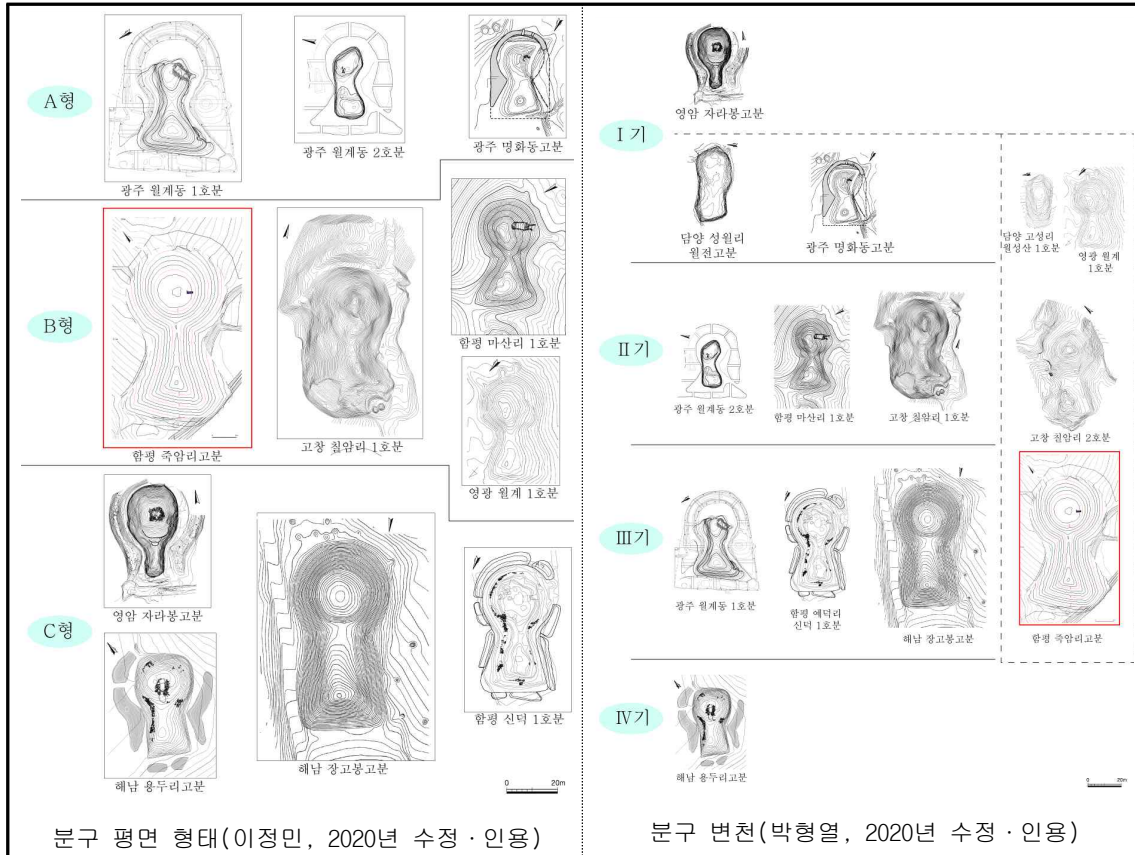
는 위세품중에서 왜계, 백제계 등과 관련된 유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석실에 매납된 시신을 안치하던 관(棺)을 살펴보면 관정과 꺾쇠로 결합한 목관이 대부분이다. 이중에는 머리 부분이 은(銀)으로 장식된 못과 원환(손잡이)이 부착된 백제계 장식 목관도 있다. 하지만 일본 규슈의 횡혈식 석실에서는 꺾쇠와 관정이 출토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피장자가 영산강유역과는 다르게 목관 등의 시설에 매장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주 월계동 1호분과 같이 판석으로 조립한 석관(石屋形석관)을 설치한 사례도 있는데 영산강유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석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으나 반대로 일본 규슈에서는 자주 확인되는 등 전방후원형고분의 피장자들은 고분의 외형, 석실구조, 출토유물 등에 있어서 왜와 밀접한 관계형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다카타 간타(지음)·김도영(옮김), 2019).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는 전방후원형고분의 출토유물을 통해 2가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바로 앞 단계인 옹관고분 출토품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문화의 연속성이 보이면서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원통형토기와 목제품 등의 왜계 유물은 일본 기나이 지역보다 북부 규슈 지역 출토품과 상통하는 점에서 북부 규슈 지역과의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구를 장식하는 원통형토기와 목제품이 출토되는 것도 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제작방법에 있어 왜에서 확인되는 양식과는 전혀 다르게 제작된다. 특히 원통형토기 같은 경우는 전방후원형고분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유적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는 하천이나 해안가와 가깝거나 해상교통이 유리한 지역에 위치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영산강유역에서 출토되는 유물 중에서 금공품을 제외하면 가장 빈도수가 낮은 유물중에 하나가 마구류와 갑주가 해당될 것이다. 마구류와 갑주가 동시에 출토되는 전방후원형고분은 함평 예덕리 신덕 1호분이 현재까지는 유일하다. 마구류와 갑주는 백제와 관련 깊은 유물로 이처럼 영산강유역 전방후원형고분에서 확인되는 부장품에는 왜, 백제, 가야계와 함께 재지계 등 다양

한 관계속에서 혼재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는 전방후원형고분의 피장자들은 다양한 주변세력과 관계나 교류를 형성하고 맺으면서 부장품을 입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1> 영산강유역 전방후원형고분 평면 및 변천 현황

이중에서도 신덕 1호분의 경우 광대이산식관으로 추정되는 금동관과 금동신발의 존재는 파장자가 영산강유역권에서 확인되는 전방후원형고분 피장자 중에서 가장 최상위에 해당되며, 현재 그 피장자의 주인공은 아마도 왜와 밀접한 관련을 맺은 인물로 추정된다. 더구나 전방후원형고분에서 자주 확인되는 석실내의 주철 흔적, 하천이나 해안가와 인접된 수로와 관련된 고분의 입지 선정은 대외무역 또는 교류와 관련된 인물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이미 5세기 대에 해당되는 역사적 사실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 유적이 전남 서·남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즉 신안의 도서지역과

삼산천수계 중심의 해남반도에서 확인되는 다량의 왜계 계통의 유물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三國史記』⁶⁾에 언급된 당시 백제 중앙권력 집단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기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夏五月 王與倭國結好 以太子腆支爲質 ... 十四年 王夢 王仲 ... 季弟磔禮殺訓解 自立爲王 腆支在倭聞訃 ... 倭王以兵士百人衛送 ... 腆支留倭人自衛 依海島以待之 ...

... [아신왕 6년(397년) 여름 5월에 왕이 왜국과 우호를 맺고 태자 腆支를 왜국의 인질로 보냈고 ... 14년(405)년에 왕이 죽자 ... 막내 동생 磔禮가 訓解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 腆支가 왜국에서 부음을 듣고 ... 왜왕이 병사 100명으로서 호위해서 보냈다. ... 腆支는 왜인을 머물러 두어 자기를 호위하게 하였으며, 바다의 섬에 의거하여 기다렸더니 ...]

『三國史記』 腆支王條에서 腆支가 “바다의 섬에 의거하여 기다렸다”는 구절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역사적인 시기와 어느 정도 부합되는 고분으로는 신안 외도고분, 안좌도 배널리 3호분과 남해안의 고흥 야막고분, 길두리 안동고분 등 비록 매장주체부가 석곽분이지만 다량의 왜계유물(갑주, 동경, 철경, 鳥舌鏃 등)이 부장되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당시의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5세기 대를 기점으로 전남지역의 해남반도와 신안 등 도서지역에 다량의 왜계 유물과 석곽분의 축조되던 시기는 백제가 고구려에 의해 한성 백제가 붕괴(475년)되며, 웅진으로 천도하던 시기다. 이 시기는 백제내부 정국의 불안에 따라 왕권이 극도로 약화되면서 왕족과 유력 귀족세력들간의 대립으로 전남지역에 대한 백제의 통제력은 급속도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는 倭의 경우에도 혼란해진 백제와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당시 가야지역 특히 금관가야와의 교류가 어렵게 되자 倭정권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아

6) 三國史記, 卷 第二十五 百濟本紀 第三 阿莘王條, 百濟本紀 第三 腆支王條.

라가야와 소가야 등 남해안의 서부지역과 영산강유역을 교류의 대상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倭의 외교적 선택은 백제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직접 중국과 교류를 하게 되는데 당시 南朝의 宋외에도 齊와 梁에도 사신을 파견하는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선보인다.

이처럼 당시의 동북아시아 국제정세는 광개토대왕의 활발한 정복사업에 힘입은 고구려의 남진정책과 백제는 한성백제의 붕괴와 왜의 홀로서기 외교 등의 영향으로 왜와의 경우는 중국과의 해로에 위치한 전남지역의 마한세력과 상호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당시 전남지역의 마한세력들도 백제가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왜와의 활발한 교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고고학적 산물이 바로 倭系 甲冑와 銅鏡, 유구열도산 貝劍 등의 부장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남지역 고총고분 단계의 5세기 대에는 다양한 위세품이 정치적·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시기로,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시작된 위세품의 부장은 석곽분과 이후, 초기 석실분 단계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비교적 풍부하게 부장된다. 위세품의 용도는 비실용적인 물건이나 위세품의 부장은 정치적 동맹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하며, 이러한 이용은 상위계급이 하위계급과 또는 강대국이 약소국의 지배력을 정치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여의 징표로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고대국가 단계에서는 중앙권력의 영역확산 내지는 지배력 등을 알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5~6세기 대까지 전남지역에서 다양하며 활발하게 확인되는 위세품의 경우도 당시 백제와 倭(大和政權), 중국과 관계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치적·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이다(이범기, 2016).

이러한 경우는 일본의 古墳時代에도 銅鏡, 다양한 裝飾大刀 등 실생활과 상관없는 유물들이 제작되어 각 지역으로 유통되어 당시 畿內政權의 중앙권력이 각지 수장층의 정치적 지위를 보증해 주는 징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위세품의 유통에 따른 결과로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都出比呂志, 1994). 이처럼 영산강유역의 시대

적 환경은 사전에 전방후원형고분과 같은 새로운 묘제를 축조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으며 고분의 입지가 수로와 밀접한 해안가나 하천변에 축조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전방후원형고분 축조집단의 세력은 옹관고분으로 대표되는 마한의 재지세력들과는 배경이 다르고 어느 정도 독자적인 세력기반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전방후원형고분과 같은 이질적인 무덤에서 나타나는 차별화된 입지선정, 석실의 축조방식과 부장되는 유물의 양상 등을 살펴보았을 때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했던 독립적인 위치와 백제보다는 일본과 관련된 독자적이며 어느 정도의 군사력과 경제적 기반을 소유하였던 무장세력의 수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범기, 2020). 그러나 고분의 축조가 단발성에 가깝고 축조시기도 비교적 짧게 유행했던 점으로 추측해보면 아마도 지속적인 영산강유역의 마한 재지세력과의 갈등 속에서 점차적으로 소멸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IV. 맺음말(향후 연구과제)

지금까지 전방후원형고분 축조집단의 성격과 출토 유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분형에 대한 축조방식은 백제보다는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제작기법에서 백제적 요소와 가야 등의 영향을 유물 또한 적지 않다. 또한 일본의 전방후원형고분에서 필수적으로 확인되는 다양한 형상하니와가 오히려 영산강유역 전방후원형고분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⁷⁾.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는 전방후원형고분에 대한 연구는 크게 편년안과 주인공의 출자 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재지세력 또는 백제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로 진행되었다. 특히 출자와 주인공의 문제에 대한 가설들은 나름

7) 영산강유역 고분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형태의 형상하니와의 존재는 오히려 방대형(계) 고분인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과 영암 내동리 쌍무덤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의 설득력에 의해 현재까지도 진행형이지만 아직까지도 거시적인 검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전방후원형고분의 출현과 축조배경이 의미하는 고분사회 내부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이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은 아무래도 기초자료의 부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백제와 왜의 국제관계에 따른 당시 사회적인 본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제한적인 자료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의 축적된 자료와 다양한 과학적 접근방법과 유물에 대한 다양한 분석기법 등의 발전으로 연구의 대한 기본적인 뒷받침도 갖추어졌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성과의 기반위에 전방후원형고분과 재지세력, 백제, 왜와의 사회체계연구, 영산강유역에 위치한 마한제소국간의 네트워크 연구, 당대 산물의 생산과 유통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국립나주박물관, 2019, 『한국의 장고분』.
- 국립광주박물관, 2021,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 권오영, 2014, 「고대 한반도에 들어온 유리의 고고, 역사학적 배경」, 『한국상고사학보』85, 한국상고사학회.
- 김승옥, 1999, 「고고학의 최근 동향 -이론과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제 31, 한국상고사학회.
- 김낙중, 2011, 「장제와 부장품으로 살펴본 영산강유역 전방후원형 고분의 성격」, 『한반도의 전방후원분』, 학연문화사.
- 김낙중, 2021, 『고고학으로 백제문화 이해하기』, 진인진.
-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2011, 『한반도의 전방후원분』, 학연문화사.
- 박천수, 2007, 『새로 쓰는 고대 한일교섭사』, 사회평론.
- 박중환, 2020, 「장고형고분, 한·일 양지역 마한세력이 구축한 反百同盟의 遺産」, 『장고분의 피장자와 축조배경』, 2020년 마한연구원 국제학술회의, 마한연구원.

- 서현주, 2021, 「영산강 유역에서의 백제와 마한-고고자료 중심으로-」, 『백제는 언제 영산강 유역으로 진출하였나』, 한성백제박물관.
- 이정호, 2019, 「영산강유역 고분으로 본 수장세력」, 『영산강유역 마한사회의 여명과 성장』, 학연문화사.
- 이범기, 2016, 『영산강유역 고분 철기 연구』, 학연문화사.
- 이범기, 2019, 「고분 출토 금동관과 식리로 살펴본 마한·백제·일본과의 비교 검토」, 『지방사와 지방문화』22-1, 역사문화학회.
- 이범기, 2020, 「영산강유역 장고분(전방후원형고분) 출토 철기유물의 성격」, 『장고분의 피장자와 축조배경』, 2020년 마한연구원 국제학술회의, 마한연구원.
- 이문형, 2022, 「호남지역 전방후원분의 성격과 피장자」, 『위세품으로 본 백제와 마한』, 제30회 호남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호남고고학회.
- 임영진·오동선·최영주, 2018, 「한국 장고분의 성격과 정체」, 『계간 한국의 고고학』 35, 주류성.
- 임영진, 2020, 「삼국시대 영산강유역권 금동 위세품의 역사적 성격」, 『백제학보』31, 백제학회.
- 임영진, 2021, 『백제는 언제 영산강 유역으로 진출하였나-종합토론문-』, 한성백제박물관.
- 최영주, 2018, 「한국 분주토기 연구-분포 양상과 변천과정, 고분의례과정을 통해-」, 『호서고고학보』40, 호서고고학회.
- 다카타 간타(지음)·김도영(옮김), 2019, 『한반도에서 바라본 고대 일본』, 진인진.
- 都出比呂志, 1994, 「古代文明と初期國家」, 『古代史復元 -古墳時代の王と民衆』, 講談社.
- 山本孝文, 2020, 「일본의 고분시대 연구와 한국의 전방후원형고분」, 『장고분의 피장자와 축조배경』, 2020년 마한연구원 국제학술회의, 마한연구원.

제4강좌 :

신창동유적
-광주의 문화적 기원-

조 현 종

(前국립광주박물관 관장)

신창동유적 -광주의 문화적 기원-

조 현 중(前국립광주박물관 관장)

I. 신창동유적의 조사

신창동유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512-1 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이 일대는 해발 30m 정도의 잔구성 구릉지대와 영산강 변의 곡간충적지로 이루어져 있다. 신창동유적은 1963년 서울대학교 조사단이 총 53기의 옹관묘를 조사함으로써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후 1992년 도로공사가 진행되면서 국립광주박물관이 긴급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토기가마, 환호, 주거지, 발 등이 확인되어 본 유적은 초기철기시대의 생산 및 생활, 분묘유구가 결합된 대단위 농경복합유적임이 밝혀졌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확인된 저습지유적으로 사적 제375호로 지정되었다(1992.9.9), 이후 지속해서 발굴조사가 시행된 결과, 출토된 목기류와 칠기류 등 생활유물은 그동안의 인식범주를 넘어서는 것들로서 당시의 광주의 문화상과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1. 신창동유적 개념도

II. 주목되는 유구와 유물

가. 유구

신창동 유적은 4개의 구릉과 구릉 사이의 곡간지대에 다양한 유구가 각각 분포하고 있다. 각각의 구릉에서는 옹관묘와 토기가마·환호·밭 등이 분포하고 주거구역과 저습지가 확인되었다. 저습지유적은 구릉사이의 곡간에 위치한다. 토기가마는 폐기된 환호의 경사면을 이용한 것으로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며 내부에서 다량의 무문토기와 방추차, 솥돌 등이 출토되었다.

옹관묘는 지표하 20~30cm 정도 깊이에서 확인되었다. 옹관의 크기는 대체로 30~50cm가 주를 이루며, 1개로 된 단옹식과 3개로 된 삼옹식 각 1기를 제외하면, 모두 합구식으로 횡치(橫置)가 기본인 이른바 신창동식 옹관묘이다. 사용된 토기는 외반구연의 송국리형토기와 단면 삼각형의 점토대토기, 그리고 양쪽에 우각형 파수가 달린 명사리식토기 등이 결합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인근의 광산구 운남동유적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옹관묘는 황해도 신천군 명사리 및 영남지방의 삼천포 늪도, 대구 팔달동, 창원 다호리유적 등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저습지는 곡간에 형성된 배후습지성 湖沼가 퇴적으로 메워져서 육지화된 것이다. 저습지 하부의 뽕층(silt)에서 발견된 우렁이, 재첩, 조개유체 등이 이를 증명한다. 퇴적층의 두께는 최대 350cm 정도이며, 속성은 모래와 진흙, 벚짚과 벼껍질(왕겨)·나무와 나뭇잎 등의 禾本科 초목류, 토기가마의 부산물인 소토와 검정 또는 회백색의 재, 숯, 그리고 농가의 생활 잔존물 등이다.

저습지의 층위는 10개 층으로 세분되며, 이는 다시 3기의 문화층으로 구분된다. I기층은 최대 155cm 두께의 흑갈색 유기물부식토층으로 기본적인 속성은 벼껍질압착층이다. 맨 밑바닥인 뽕층과 구 지표면 위에 형성된 층위로 벼줄기 등 화본과 식물, 나무와 나뭇잎, 각종 탄화미를 비롯한 씨앗류, 목기와 칠기, 동물유체 등과 함께 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다. II기층은 최대두께 100cm 정도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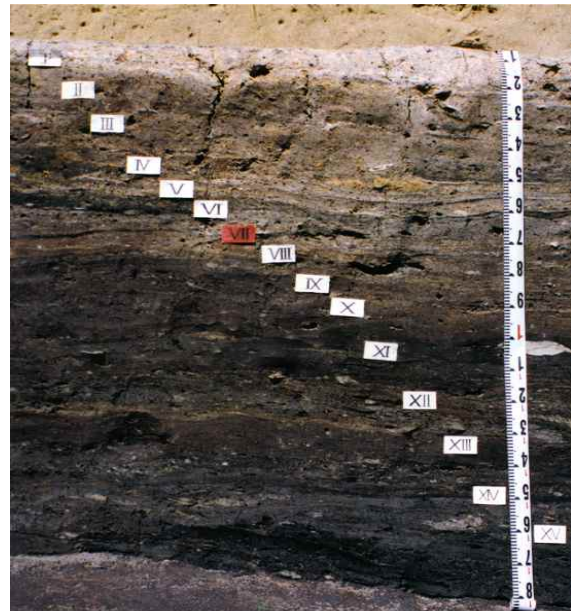


그림 2. 신창동유적의 토층도

홍수퇴적물과 목탄 및 소토 등 토기가마 부산물이 포함된 점성이 강한 진흙층이 중심을 이루고, 그 사이에 황갈색 사질경화층과 갈색 진흙층, 회백색 또는 검정 재층이 간입(間入)되었다. 특히 황갈색 사질경화층은 철분(Fe)이 다량 집적된 모래층으로 단단한 피막 층을 형성하여, I기층의 유기물층이 함수상태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두(豆)와 시루 등 점토대토기 등 토기류가 주종을 이루며, 탄화미를 비롯한 씨앗류도 출토되었다. Ⅲ기층은 유적의 최상부에 해당하는 층위이며 자연퇴적과 경작으로 지형이 변경되거나 교란된 층위이다. 무문토기류가 대부분이나 타날문토기 등 경질토기, 옹기와 자기, 기와편 등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도 발견된다.

저습지 조사과정에서 직경 25cm 안팎의 대형 나무 기둥이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진 채 확인되었다. 이 나무기둥은 함께 출토된 문짝으로 보아 창고나 공방 등의 고상식건물(高床式建物)의 목주(木柱)일 가능성이 많다. 이와 함께 수로에 인접하여 직경 5~10cm 정도의 작은 나무가 박힌 길이 5m 정도의 말뚝 열이 발견되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을 거는 정치대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나. 유물

저습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와 목칠기류, 그리고 동식물유체로 구분된다. 토기류는 무문토기 전통을 보이는 高杯와 甕, 壺, 鉢, 시루, 대접 등 기원전 1세기대의 점토대토기 단계의 모든 기종이 발견되었다. 목칠기류는 목검 및 목제 검토투와 같은 무구류, 고배와 국자 등 다양한 식생활 용기류, 낫자루와 팽이 등의 농구류, 발화구와 신발골, 망치를 비롯한 생활용구, 마차, 삼태기 등의 운반구, 바디 등 벼들부속구와 실감개·가락바퀴 및 직물, 파문칠기, 소형목제품, 현악기 등 생산과 생활, 제의와 관련된 사회문화의 전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망라한다. 특히 흑칠이 담겨있는 채로 출토된 칠용기와 마연용 布 및 칠 주걱의 공반은 당시 이 유적에서 직접 칠기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당시인들의 식생활 사정을 비롯한 동식물의 종류와 경관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동물과 식물의 유체가 확인되었다. 동물유체로는 굴과 재첩, 잉어, 가물치, 돔 등의 어패류, 소, 사슴, 멧돼지 등의 포유류, 그리고 꿩, 오리, 까마귀, 기러기 등의 조류가 확인되었으며, 골각기는 뼈바늘과 제의 관련 유물인 복골(卜骨)이 출토되었다. 제의와 관련된 유물인 복골은 소와 사

습, 멧돼지의 견갑골을 이용한 것이다.

식물유체는 벼(탄화미, 벼껍질, plant-opal, 花粉)와 조, 밀, 참외(또는 오이), 박, 들깨(또는 소엽), 삼 등 경작류와 돌피, 명아주류 그리고 사초과의 논 잡초류를 비롯한 습지식물 등의 씨앗과 화분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상수리 등 도토리류, 산 복숭아, 호도를 비롯한 다양한 견과류도 출토되었다. 신창동 유적의 벼는 논과 밭에서 재배된 것으로 보이는데, 논은 구릉 c와 구릉 d 사이에 있는 곡간지역의 시굴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밭은 구릉 b의 서쪽 사면에서 검출된 바 있다.



그림 3. 신창동유적 출토 각종 토기

Ⅲ. 2,000년의 인식을 소급한다.

광주 신창동유적의 중요한 특징은 저습지유적의 조사방법론을 계획적으로 적용한 우리나라 최초의 유적이다. 저습지유적은 호소와 같은 습지나 그 주변에 형성된 유적으로 유기물 보존이 양호하여 과거의 생활양식을 밝혀줄 중요한 자료가 출토된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다양한 목기와 칠기류, 토기류,

동·식물유체 등의 다양한 유물은 2,000년 전의 우리나라 문화사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 필요한 자료이다. 이른바 3最, 즉 最古, 最初, 最大라는 수식어가 말해주듯 신창동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기원전 2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고대문화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제공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의 인식을 뛰어넘는 의미를 가진 유물을 거론하면 아래와 같다.

1. 최대 벼 생산량

신창동유적에서는 벼, 조, 밀, 들깨, 오이, 삼 등의 다양한 재배 작물과 155 cm 두께의 벼껍질 압착층, 그리고 벼를 재배한 밭이 확인되었다. 특히 밭벼의 재배자료는 우리나라 최초로 확인된 것이다. 신창동유적에서 확인된 벼껍질 압착층을 벼의 무게로 환산하면 500여 톤에 달한다.⁸⁾ 출토곡물 가운데 재배된 벼 자료로는 중국의 허무두(河姆渡)유적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량이다.

이와 더불어 출토된 탄화미의 계측결과는 길이 $4.60 \pm 0.27\text{mm}$, 너비 $2.47 \pm 0.14\text{mm}$, 두께 1.75 ± 0.11 이고, 낱알은 3.95~5.45mm로 비교적 변이가 큰 편이다. 유적에서 출토된 재배작물인 벼는 토양샘플과 탄화미, 벼껍질 등의 분석 및 DNA 결과 오늘날 한민족이 미식으로 재배하는 단립형(短粒型, *Oryza sativa* L. var. *japonica*)품종으로 밝혀졌다.

2. 목기와 칠기

신창동 저습지유적에서 출토된 목기의 수량은 1,000여 점에 달한다. 이를 기종별로 분류하면, 무기·농기구·공구·용기·제의구·방직구·악기·수레부속구·건축부재 및 기타 생활용품 등이다. 농공구의 자루와 수레바퀴 등은 단단한 나무인 참나무이며, 악기인 북은 울림이 좋은 버드나무로 제작되었다. 이것은 2,000년 전 신창동 사람들이 나무의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용도에 맞는 적절한 나무를 선정하였음을 알려준다.

칠기는 완성된 종류뿐 아니라 칠이 묻어 있는 천 조각과 칠이 담긴 용기, 그리고 칠을 바르는 칠 주걱 등 칠기의 제작과정을 보여주는 일련의 자료가 확인되었다. 토칠은 소위 우리나라 칠공기술의 내용과 관련된 최초의 자료이며, 2,000년 전 신창동유적에 고도의 칠기 제작기술을 가진 집단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8) 이는 현재까지 조사된 세계 최대의 벼 생산 자료이며, 10t의 덤프트럭으로 50대에 실을 수 있는 양이다.

3. 비단과 삼베, 베들

신창동유적에서는 실을 만드는 가락바퀴와 실의 탄력을 일정하게 조절하기 위한 실감개, 그리고 천을 촘촘하게 짜기 위해 사용하는 바디가 출토되었다. 바디는 우리 선사·고대를 통틀어 최초로 출토된 것으로 이 시기 베들의 구조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같은 바디의 형식은 현재 중국 운남지역 등의 민족지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비단(silk)과 합사(合絲)된 마포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직물자료가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知蠶桑 作綿布, 晏사치 기사의 弁韓布, 曉蠶桑 作縑布, 亦作廣幅細布 등의 기사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자료이다.

4. 한금(韓琴)⁹⁾

신창동유적에서 출토된 악기의 형태는 두부(頭部)에 줄을 거는 작은 구멍이 있고, 미부(尾部)에는 평면 역삼각형의 돌출부를 만들고 있다. 미부에 두 개의 측구멍이 위치하여 현고정부를 결합하는 구조이다. 반파된 것으로 현재 남아 있는 줄 구멍은 6개이나 원래는 10개로 복원할 수 있다. 내부는 전체적으로 오목하게 파내어 구유(槽)를 만들었고, 중앙부는 볼록하게 솟아 있는데 이는 받침의 이동을 통해 음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생각된다. 바닥면은 전체를 고르게 깎아 평탄면을 만들었다. 악기와 관계된 기록은 동이전의 변진(弁辰)조에서 찾을 수 있는데 「...有瑟 其形似筑 彈之亦有音曲...」이라 하여 瑟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형태적으로는 중국의 축과 닮았으며, 그것이 줄을 타는 현악기임을 얘기하고 있다. 축(筑)은 중국 고대의 현악기로 5현이며 목이 가늘다고 하였다¹⁰⁾. 연주 때에는 왼손으로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대나무를 쥐고 눌러 뜯어 음율(音律)을 내는 악기이다. 이 가는 목에 착안하여 신창동 악기를 곧 중국의 축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형태상으로 가는 목이라는 것 외에는 기본적으로 현의 고정 방법과 같은 구조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동이전의 표현처럼 슬, 즉 현악기인 점은 분명하지만, 신창동악기의 계보를 축으로 론거하는 것은 무리이다.

9) 신창동유적의 현악기와 같은 형식의 악기가 林堂의 A-I-121號 木棺墓 및 창원 다호리 1호묘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악기는 지역적으로 삼한 지역의 유적에서 고루 확인되며 시기적으로도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는 한반도 남부지방이 문화적으로도 제일성을 띠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점에 착안하면 기원전 1세기대를 전후하여 한반도 남부에서 유행한 악기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韓琴』이라 칭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10) 林巳奈夫, 1976, 『漢代の文物』,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pp.433-434.

5. 마차

1997년 광주 신창동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조사당시에는 유례가 없어 의례 용목기(儀禮用木器)로 해석되었지만, 수레바퀴의 바퀴살(輻)이 박힌 곡(轂)과 차형(車衡)으로 정식 보고되었다.¹¹⁾ 출토된 바퀴통에는 바퀴살이 박혀있거나 빠져나간 흔적이 잘 남아 있다. 차형은 수레를 끄는 말의 고삐가 통과하는 부분으로 멍에(鳥喙.輓)가 장착되며 수레채(輓)에 의해 굴대(車軸)와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나무막대에 청동제 고삐고리(拳銃形銅器)와 결합한 형태가 황해도 은파군 갈현리(葛峴里) 하석동(下石洞) 토광묘유적에서 알려지고 있지만¹²⁾ 완전한 형태는 신창동유적의 출토품이 최초의 예이다. 권총형동기가 삽입된 형태의 고삐고리까지를 목재로 만든 일목조(一木造)이다.

한반도의 마차는 끝채의 형식과 미필의 수에 따라 I식(1輓2頭式)과 II식(2輓1頭式)으로 구분된다. I식은 바퀴를 연결한 차축의 중심에 부착된 끝채(輓)를 좌우에서 각각 1필의 말이 끄는 이른바 쌍두마차이고, II식은 마차의 양쪽에 채[輓]를 걸고 그 안에서 1필의 말이 끄는 마차이다. I식은 전국시대 마차를 조형으로 하였지만, 권총형동기, 삿갓형동기, 을자형동기 등의 부속구는 중원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유한 것으로 이른바 고유한 고조선식 마차의 구성부품이다¹³⁾. 그 성립시기는 낙랑군 설치 이전(BC,108), 즉 기원전 2세기 후엽으로 판단된다.

II식 마차가 주로 출토되는 서북한지역의 토광묘는 당시 고조선계 토착사회집단과 관계되는 유력자의 묘제이다. 신창동유적과 낙랑지역 토착집단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알 수 없지만, 마차가 갖는 권위적 상징물로서의 의미로 보아 수장급 실력자의 존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차마구의 성립은 평양지역으로부터 문물의 유입뿐 아니라 제작 기술의 이전이 수반된 결과이며, 신창동유적의 경우 그 과정에서 현지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다. 그 시기는 적어도 기원전 1세기 전반경으로 판단된다. 신창동유적에서는 철경부동축과 낙랑계 토기편 등 대동강지역과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는데 이것은 새로운 물산과 기술의 수용을 가능하게 한 지역간 교류체계가 성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신창동유적에서 출토된 마차의 실물은 위지동이전, 한전의 「...不知乘牛馬, 牛馬盡於送死」라는 기록과 비교되는 것으로 변진전의 「弃辰韓...乘駕牛馬」도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11) 趙現鐘 外, 2002, 『光州 新昌洞 低濕地遺蹟』IV, 國立光州博物館.

12) 과학원, 1959, 『황해북도 은파군 갈현리 하석동 토광묘유적 조사보고』 『고고학자료집』2.

13) 국립중앙박물관, 2001, 『낙랑』, 술.

6. 발화도구

발화구는 불을 일으키는 도구로 신창동유적에서 발화막대, 발화막대집, 발화대가 출토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출토된 발화도구이며 시기적으로도 가장 빠르다. 출토된 발화대는 판재이고 상하면을 평탄하게 다듬은 것으로 사용 전에 발화효율을 높이고 작업을 쉽게 하도록 측면에 「V」자형의 홈을 만들었다. 1회 또는 2회 정도 사용한 것으로 대부분 내부가 검게 그을려 있다. 발화구는 회전에 의한 마찰열에 의해 발생한 탄화물이 측면에 난 홈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발화판의 아래에서 불붙기 쉬운 착화물 위에 쌓이면서 불을 얻는 도구이다.

발화도구와 발화방식에는 세계 각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¹⁴⁾ 그 가운데 이러한 마찰에 의한 발화의 방법은 왕복마찰식과 회전마찰식이 있다. 전자는 다시 화거법(火鋸法)과 화구법(火溝法)이 있는데 전자는 막대를 나무판에 직교하여 톱질하듯이 전후로 문지르는 방법이며, 후자는 홈이 파진 나무판의 홈에 막대의 한쪽 끝을 집어넣고 빠르게 문질러 발화가 되게 하는 방법이다. 신창동유적의 발화구는 회전마찰방식으로 구멍이 파여진 발화판에 발화막대를 집어넣고 빠르게 회전시켜 불을 얻는 방법이다. 이러한 형식의 발화구는 아시아나 아메리카·아프리카지역 등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도구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관술이 상당량 출토되었다. 관술은 송진이 많이 엉긴 소나무의 조각으로 유적출토품은 실제 한쪽에 불을 붙였던 흔적이 잘 남아 있다.

7. 신발골

풀로 만든 초혜(草鞋)나 가죽신 모두 신을 만들 때는 안쪽에 기본 골격, 즉 신발골을 대고 겉에서 새끼나 가죽 또는 천과 같은 재질로 엮어 작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신발제작에서 신발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이다. 신창동유적(1995년)에서 출토된 신발골은 길이 26.6cm, 너비 8.9cm, 높이 5.6cm로 형태는 발의 모양과 흡사하며, 바닥은 평탄하게 깎았지만, 앞과 뒤는 약간 들려 있다. 발등에서 신코까지가 경사져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이전의 기록에서와 같이 가죽신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이전의 기록인 『~衣布袍 足履革躡躄』, 즉 「가죽신을 신고 뽐내고 걷는다」는 기사와 상통되는 유물이다.

14) 岩城正夫, 『原始技術史入門』, 新生出版.

8. 모자 弁?

모자는 부챗살 모양 목제품으로 보고된 것이다. 여러 점을 연결하면 고깔 형태로 복원되는 것에 착안하여 추정 복원한 것이다. 각각의 부재는 길이 25cm 내외의 평면 이등변삼각형의 것으로 상하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러한 판재를 12~13조각 연결하면 직경 22cm, 높이 23cm 정도의 모자로 복원된다. 『後漢書』 「東夷列傳」第75의 “冠으로는 고깔(弁)을 쓰고 비단옷을 입으며”라 하여 례(禮)를 숭상한다는 기사에서 확인되는 그 변의 실물로 판단된다. 또, 동이전 한조의 『其俗好衣幘』이라 하여 옷과 모자쓰기를 즐겨한다는 책(幘)이 단순한 두건이라면 모자는 따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아마 변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후한 말 유희(劉熙)의 『석명(釋名)』에서는 끝이 뾰족한 삼각형 모양의 관모 형상을 변이라 하였으며 「弁字의 윗쪽 △자는 삼각형태의 관모를 표현하고 밑의 卩자는 관모의 끈을 표현한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弁으로 보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동이전 한조의 『魁頭露紛 如戾兵 衣布袍 足履革躡躄』기록인 「상투를 드러내는데 마치 빛나는 병기와 같다」라는 내용은 그 형상에서 뾰족한 변을 착용한 모습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같은 형식의 목제품이 경북 성주 상언리유적에서도 출토된 것으로 보아 변이 동시기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민속례에서 보이는 조선시대 갈모, 또는 입모(笠帽)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9. 집게

집게는 기능적으로 인간의 손을 대신하는 도구로 고안되었다. 신창동유적 출토 집게는 둥근 나무를 반쪽으로 쪼갠 뒤 안쪽 면은 편평하게 다듬고 바깥면에 만든 가는 홈에 끈을 묶어 고정한 것이다. 길이 15.1cm, 너비 2.8cm 정도이다. 집게는 고정하려는 물체를 한쪽에 물리고 반대편에 썩기를 끼워 단단하게 결착시키는 도구이다. 물체의 두께에 따라 다양한 두께의 썩기가 사용되었다. 신창동유적의 통형철기는 얇은 판재를 둥글게 돌려 통을 만들었는데, 판재의 이음새에서 옷칠만 확인될 뿐 끈 등으로 묶은 흔적이 없어 이러한 집게로 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전통공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른바 『물림집게』와 구조적으로 동일한 형태이다. 이러한 나무 집게는 최초의 조형으로서 철기의 유입에 따른 단야도구(鍛冶道具)의 출현과 함께 재질의 변화를 거쳐 현재의 다양한 집게가 제작되는 기원 도구이다.

10. 통발

나뭇가지를 둥글게 엮어 위는 좁고 아래는 넓게 벌어진 형태로, 물고기를 가두어 잡는 어구의 하나이다. 신창동유적에서 출토된 통발은 지름 3~4mm 정도의 가는 싸리나무 줄기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다. 납작하게 퍼진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위가 좁고 아래로 가면서 점차 바라진 형태이며, 가운데가 열려 있다. 두 겹으로 되어 있어 통발 모양으로 복원할 수 있다.

한편, 비슷한 형태의 어구로 방죽이나 하천 등에서 물고기의 위를 덮어 가두어 잡는 이른바 가리가 있다. 여름철 논이 물에 잠기면 붕어·잉어·메기 등의 물고기가 논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물이 얇아진 뒤에 가리를 이용해 잡기도 한다. 현재 중국 윈난성[雲南省]에서는 모내기를 할 때 논에 치어를 방류하고, 추수때가 되면 자란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되는 가리와 유사하다.

IV. 대외교역의 거점

신창동유적은 기원전 1세기 전엽 경에 형성된 영산강 중류역의 농경복합유적으로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드러난 유구나 출토유물이 이를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그리고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각지와 의 교류거점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들은 선진문물을 도입하고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교류를 수행하였다. 그러한 배경은 높은 벼농사 생산력이었다.

신창동유적이 형성되기 이전 영산강유역에 외래문물의 요소가 확인된 시기는 기원전 2세기경이다. 부여 합송리유적, 당진 소소리유적, 장수 남양리유적, 완주 갈동리유적과 같은 전국계 철기부장이 영산강유역의 유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남지역의 영산강유역에서 중국자료는 함평 초포리유적에서 출토된 중국식동검, 즉 도씨검이 최초의 자료이다. 세형동검, 동과, 동모, 동령, 동경 및 천하석제 식옥 등과 공반된 이 동검편은 완주 상림리 일괄품과는 달리 파손된 방제품이다. 따라서 이 중국식동검은 제작기술에 대한 정보의 유입이 이루어졌거나 장인이 이주하여 만든 제작품일 가능성이 크다. 기원전 2세기 전엽에 영산강이 중국(군현)과 한국, 그리고 일본(왜)을 연결하는 이른바 국제교역망에 편입된 결과로 판단된다.

기원전 2세기 후엽경이 되면 신창동유적에선 오수전이 확인되지만, 해남 군곡리패총과 나주 수문패총, 나주 낭동유적, 광주 북룡동유적 등 영산강수계에서는 기원전 1세기 전엽에 대외 교역자료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 해남 군곡리패총의 화천, 나주 수문패총의 제주산 토기편, 나주 랑동유적의 화천

2매, 광주 북룡동유적의 화천 50매 등이 그것이다. 동시기 신창동유적에는 유리 옥, 마차자료, 철경부동축 및 낙랑계 토기편, 弥生계 토기편 및 제주산 현무암과 자작나무 수피제품 등 대외교류를 통해 획득한 자료가 탁월하다. 이러한 적극적인 교류활동은 당시 신창동유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화폐의 출토상으로 본 유적의 분포는 화천이 비교적 광범위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오수전이 앞선다. 오수전(五銖錢)은 중국에서 제작 유통된 화폐로,전한 무제(재위 기원전 141년-기원전 87년) 때인 원수 5년(기원전 118년)에 처음으로 주조되었으며 무게가 당시 도량형으로 5수(銖)였기 때문에 오수전이라 이름하였다.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유통된 대표적인 화폐이다. 한반도의 금속화폐는 철기문화의 유입이나 낙랑문화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출토지역도 대부분 중국문화의 직접적인 영향이 강한 북부지방에 집중되고 있다. 평양의 낙랑무덤에서 많은 양이 출토되었으며 황해도 은율군 운성리, 황주군 선봉리 1호분, 흑교리 등의 토광묘 자료가 있다. 특히 흑교리에서는 서한(西漢) 후기의 기원전 60년에 주조된 천상횡문(穿上橫文) 오수전이 출토되었다.

남부지방에서 오수전은 북부에 비해 빈도나 수량이 매우 적지만, 한강유역, 동해안지역의 강원도, 그리고 남해안의 도서 및 해안지역, 호남 및 영남의 내륙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 남한지방에서 출토된 오수전은 10개 지역에서 1,00여점 가량이다. 광주신창동유적 1점을 비롯해서 서울 풍납토성 1점, 강릉 초당동유적 2점, 여수 거문도 980점, 창원 다호리유적 3점, 창원 성산유적 1점, 사천 녹도유적 1점, 경산시 임당동유적 3점, 영천시 용천리 석관묘 3점, 제주시 산지항 4점, 신안 해저침몰선 2점 등이다.

화천은 중국 신나라(新, 8~23년) 화폐로 기원후 14년에 처음으로 주조되었으며 후한 광무제가 오수전(五銖錢)으로 화폐를 통합한 기원후 40년까지 통용되었다. 정확한 주조연대와 통용 시기가 한정되어 유적의 절대연대 추정에 중요한 자료이다. 광주시 광산구 북룡동유적 외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화천은 총 19점으로, 주로 조개더미 등 생활 관련 유적에서 소량으로만 확인되었다. 화천은 제주 산지항 11점, 제주 종달리 조개더미 1점, 제주 금성리 조개더미 2점, 김해 회현리 조개더미 1점, 해남 군곡리 조개더미 1점, 나주 복암리 랑동 유물포함층(저습지 추정) 2점, 신안 해저침몰선 1점 등이다. 대체로 영산강 유역과 남해안 지역, 제주도 등 한정된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어 당시 중국과 직접 교역을 하였던 거점적 집단이 한반도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했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초기철기시대의 이러한 지역거점은 남해안과

영산강의 내륙수로를 따라 해남 군곡리, 나주 북암리, 광주 신창동과 북룡동 일대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중국계 및 왜계 물품은 삼국지 동이전 왜인조의 「...從郡至倭 循海岸水行 歷韓國 乍東乍南 到其北岸狗邪韓國 七千餘里 始度一海 千餘里至對海國,...又南渡一海千餘里 各曰瀚海 至一大國...又渡一海 千餘里至末盧國...」, 그리고 제주산 물산의 이동은 동이전 한조의 「...又有州胡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 ... 乘船往來 市買韓中...」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대외교류의 결과임이 명백하다. 제주도와 연결되는 중계지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산지향의 오수전, 화천, 대천오십, 화포와 동검 부속구, 방제경, 그리고 금성패총, 종달리패총의 화천 등의 유입이 표착이 아니라면 중국과 한반도, 왜를 잇는 항로를 통해 획득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의 교역은 제주도에 기반을 둔 집단이 담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거리 항해의 경우에 선단의 도착시기는 일정하지 않고, 특히 기후와 날씨에 크게 좌우되었을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면 제주도발 교역집단은 군곡리유적이거나 수문유적을 기착지(寄着地)로 하여 일정기간 생활하였을 것이며, 제주산 물산들은 그들에 의해서 이동확산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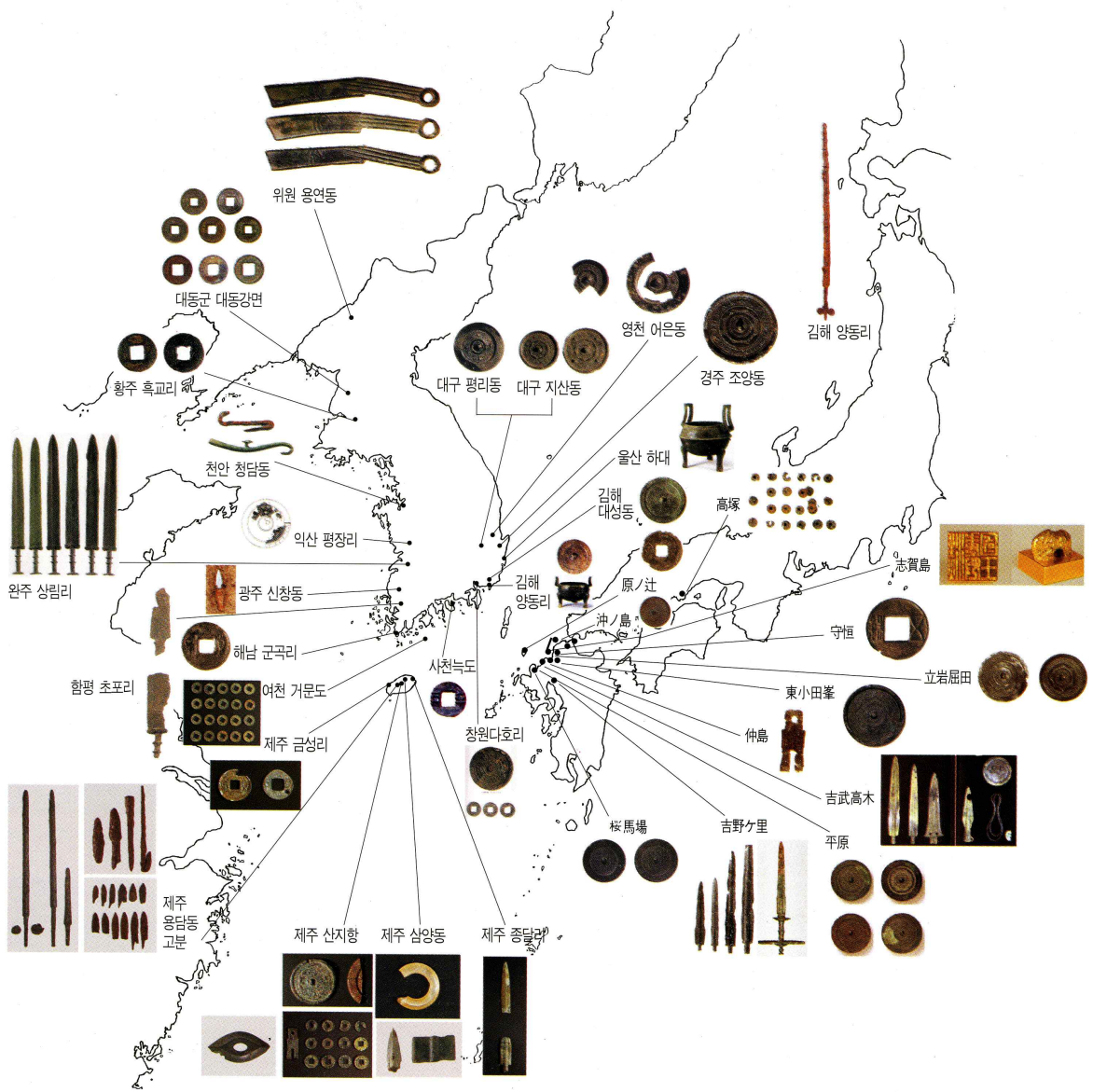
한편, 자작나무 껍질을 이용한 수피제품이 확인되었는데, 봄철 나무의 껍질을 잘라 곱게 편 뒤 일정한 형태로 재단하여 만든 것으로 용기의 저판으로 판단된다. 자작나무 수피는 천마총 장니(障泥) 및 화판(花瓣)이 알려졌으며 시기는 신창동유적이 가장 빠르다. 신창동유적의 출토목재 가운데 자작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도 자작나무는 중부 이북지방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신창동유적에서 확인된 굴과 돛 자료 역시 당시 영산강 수로를 이용하여 내륙으로 유입된 산물로 판단된다. 당시 굴은 수문패총을 한계로 내륙에서는 발견된 예가 없다. 특히 신창동유적에서는 생산지로부터 직접 생굴을 들여와 현지에서 火食한 상태, 즉 「굴구이」의 형태로 출토된 바 있다. 채취와 저장의 문제, 그리고 이동거리를 감안하면 당시 굴은 늦은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채취되고 식용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미래를 위한 유적의 디자인과 과제

신창동유적의 중심 시기는 점토대토기 후기단계인 기원전 1세기경이며 이후 삼국시대의 옹관묘와 주거지 등 후행하는 유구도 확인된다. 유적은 영산강 중류지역에 위치한 거점유적으로 특히 저습지에서는 당시의 생활문화를

해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산강수로를 통한 주변 지역과의 교류와 관련된 귀중한 고고학 자료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이룸하여 동아시아 최고의 농경 복합유적으로 다양한 고고학 내용을 보여주는 학습자료이다.

그동안 신창동유적에서 출토된 자료 가운데에는 직조와 관련된 베틀 부속구, 그리고 조사 후 수년을 기다려 쓰임새가 밝혀진 바퀴와 목제 말갯춤, 변, 집게 등 우리 고대사를 복원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매우 많다. 신창동의 유



동북아교류도 東北亞交流圖

적과 유물을 몇 개의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에 있으며 또한 출토유물과 유적이 갖는 문화사적 의미가 실로 방대한 까닭이기도 하다. 일찍이 『삼국지』 위지 동이전 한조(韓條)에 기술된 내용구성이 신창동유적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도 그러한 연유이며 지금도 정리 중에 있거나 연구 중인 유물 또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창동유적은 두꺼운 벼껍질층에서 알 수 있듯이 풍부한 농업생산력에 바탕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문화 복원의 핵심은 그러한 수준 높은 생활문화가 생성될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배경 즉, 조직화된 벼농사와 생산체계에 대한 파악이 선행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고학뿐 아니라 인류학과 민속학 등에 걸친 무궁무진한 한국문화의 보고이며 자료 창고인 광주 신창동유적의 지속적인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광주에서 벼농사를 근간으로 한 한국고대농경사회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려면 이 유적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도시의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말하자면 광주의 문화적 지향과 디자인이 신창동유적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또 역으로 신창동유적에 의해서 도시 광주도 디자인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이며 개방적인 광주문화의 오리진은 신창동에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신창동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설치가 절대적이다. 다음,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는 일이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유적의 정비나 활동은 그래서 필요성이 절실하다. 또한 유적의 중요성만큼 신창동유적의 발굴작업은 가능한 학술발굴에 국한해야 한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신창동유적의 면적은 다른 사적에 비해 매우 좁은 편이다. 그런 중에서도 고속도로가 유적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반월마을이 유적의 중요지점을 점유한 상황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유적 공간이나 면적은 정말 작은 편이다.

그동안의 발굴을 통해 유적의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유적을 보호하면서 미래의 발굴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고학자 武未純一의 말처럼 유적은 과거로부터 선물 받은 신선한 깡통과 같은 것이다. 지금 전부를 열어서 먹어버린다면, 미래의 사람들은 그 참다운 맛을 볼 수가 없다. 기록에 의해 그 맛이 전해진다고 해도 실제로 먹을 때의 감동에는 결코 미치지 못한다. 미래의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조리법(연구법)으로 완전히 다른 맛을 낼지도 모른다. 유적을 남겨 두는 일은 지금은 알 수 없는 것도 미래에 알 수 있게 되어 새로운 맛의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창동유적을 아껴서 후세에 전해주어야 한다.

문제는 지금 누가 유적이라는 깡통을 열어 맛을 먹고 즐겨야 할 것인가에 있다. 정말 그들이 유적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마땅히 지역과 시민을 위해 그 맛을 접하고 경험토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창동유적은 올해 2022년, 저습지 발굴 및 국가사적지정 3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여러분의 관심 속에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문화도시 광주에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학술대회를 통하여 신창동유적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參考文獻

- 이강래, 2005, 「『삼국지』 동이전과 한국고대사」 『전남사학』 25. 전남사학회.
- 조현종.장제근, 1992, 「新昌洞 遺蹟調查概報」 『考古學誌』 4,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趙現鐘 外, 1997・2001・2002・2003, 『光州新昌洞低濕地遺蹟』 I・II・IV・V, 國立光州博物館
- 金元龍, 1964, 『新昌里甕棺墓地』, 서울대학교 출판부.
- 趙現鐘 外, 1996, 『光州 雲南洞遺蹟』, 國立光州博物館.
- 趙現鐘 外, 2012, 『光州 明花洞古墳』, 國立光州博物館.
- 趙現鐘, 2010, 「光州 新昌洞低濕地遺蹟과 韓半島 稻作文化」 『신창동유적의 의의와 보존』, 국제심포지움.
- 조현종, 2010, 『한국고대의 수전농업과 수리시설』, 서경문화사(공저)
- 조현종, 2012, 「신창동유적의 목기와 칠기」 『중국 및 일본과 비교』, 국제심포지움.
- 조현종, 2013, 「신창동의 식물문화」 『신창동 식물문화의 동아시아적 관점』. 국제심포지움.
- 조현종, 2014, 「祭祀考古學-先史·古代의 祭祀」 『호남지역 선사와 고대의 제사』, 제 22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호남고고학회.
- 조현종, 2014, 「광주 신창동유적의 농경제사」 『도작농경사회의 제사와 의례-韓·中·日比較』. 국제심포지움.
- 조현종, 2014, 「청동기시대 목기의 종류와 특징」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5, 서경문화사.
- 조현종, 2015, 「한반도 선사시대 약기의 사회상」 『동아시아 고대 약기-광주 신창동유적출토 현약기의 복원적 검토』, 국제심포지움.

趙現鐘, 2018, 「韓國 先史時代の木製農具」『構築と交流の文化史-工樂善通先生傘壽記念論集』, 雄山閣.

趙現鐘, 2019, 「『三國志』韓傳の社會相と光州新昌洞遺蹟」『歴史・民族・考古學論攷-辻尾榮市氏古稀記念論集』, 郵政考古學會, 大阪.

국립중앙박물관, 1998, 『한국고대국가의 형성』, 특별전 도록.

국립광주박물관, 2012, 『2000년 전의 타임캡슐』-광주신창동유적 사적지정 20년 기념 특별전 도록

雄山閣, 1995, 「倭人傳を掘る」『季刊考古學』 51.

大阪府立弥生文化博物館, 1997, 『卑弥呼誕生』.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주 소 :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3, 삼호별관 2층

전 화 : 062-234-2727

팩 스 : 062-234-2728

홈페이지 : <http://www.rcef.or.kr>

이 메 일 : r-cultural@hanmail.net

지은이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펴낸이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김덕진

펴낸일 2022년 6월 10일

인 쇄 밝은인쇄복사(☎062-524-7671)

※ 이 자료집은

2022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